SAMSUNG Newsroom
삼성전자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고려사이버대학교
2020학년도 신·편입 2차 모집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음력 1월 7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1476호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

총대들 기립박수로 추대…"목숨 걸고 애국운동"
"하나님 까불면 죽어" 발언 첫 공개 사과도



"목숨 걸고 애국운동할 것"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30일 열린 한기총 제31회 총회에서 제26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사진은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총대들의 모습. ⓒ 김진영 기자

전광훈 목사가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31회 총회에서 총대 전원의 기립박수로 제26대 대표회장에 추대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전 목사는 "다시 한 번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애국운동, 다시 말해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바꾸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다시 세워주신 줄 믿는다"며 "(애국운동을) 목숨 걸고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청사진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 목사는 "(연합기관 통합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한 달 안에 한교연과의 완전한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 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한교총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교연과 우리(한기총)만 합치면 반드시 함께하겠다 했다. 며칠 전 이영훈 목사를 만났는데, 오히려 이를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다른 연합기관들로) 헤어지기 전,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원상회복 되는 날이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통합을 이룰 경우 자신은 사퇴하지 않고 공동 대표회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총대들은 이른바 '광화문 집회'로 대표되는 애국운동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전 목사에게 위임했으며, 지난 회기 이미 결의한 253개 지역 기독교연합단체의 한기총 가입 건도 재추인했다.

한편 설교 중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해 비판을 받았던 전광훈 목사가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이 총회 자리에서 공개 사과했다. 전 목사는 대표회장으로 추대되기 직전, 이 발언을 해명해 달라는 한 총대의 질문에 "이미 유튜브에서 다 해명하고 설명했다"면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해서 신앙이 어리거나 신학 지식이 약하거나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심심히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또 "교의신학적으로 주경신학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발언이 맞다. 그런데 조직신학 강의로 한 말도 아니고, 애국운동하는 세상 연설에서 한 말"이라며 "어린 성도나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고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자기의 일이 그만큼 정당함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떻게 천사를 저주할 수 있나. 불가능한 것이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저는 당시 심정상태가 그 정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이 마음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앞 '광야교회' 저녁예배 설교에서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는) 말이야"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中 '우한폐렴' 사망자 170명… 확진자 7711명 » 2면
변화하는 통일민 교회, 다문화 목회 고민 » 7면
中 기독교 장례 금지… "죽어서도 박해받아" » 8면



정규용 목사 인터뷰 » 6면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존할 수 없어"

"지난해 한국교회 주요 이슈는 신천지, 전광훈 등"

한국교회탐구센터 2019년 온라인 여론 분석 결과

한국교회탐구센터 온라인 여론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9년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는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동성애로 밝혀졌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목회데이터연구소 등에 의뢰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기독교·교회·목사' 3가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데이터 량을 도출했다. 총 232,176건(네이버 뉴스는 66,580건, 네이버 카페는 165,596건)을 추렸다.

그 결과 단순 버즈량(특정 주제에 대한 웹 상의 확산 지표)만을 보면 '신천지'가(18,137건으로 1위) 가장 많았고, 관심도는 '목회자 성범죄'가, 참여도는 '전광훈'이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천지 부분에서 신천지 반대 글은 약 40%(6,919건), 신천지 긍정 글은 약 60%(10,385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회탐구센터 관계자는 "신천지 반대 글이 급증하던 시기는 7월이었다. 이는'사이비신천지'라는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신천지 포교 방법을 폭로하는 내용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이전 6월엔 신천지 긍정 글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 때 '나도 신천지 기자다'라는 네이버 카페에 329건의 글이 실렸고 이와 함께 다양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글이 확산됐었다"고 했다.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본문 수 대비 조회 수 분석에서 '목회자 성범죄'는 49.1%로 1위, '명성교회 세습'이 46.8%로 큰 차이가 없는 2위로 나타났다. 반면 '전광훈'과'신천지'는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소수의 사람들에겐 '신천지', '전광훈'등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많은 대중들에겐'목회자 성범죄'와'명성교회 세습'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수 분석에서는 '전광훈'이 32.1%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남. 다른 정치적인 이슈와 마찬가지로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찬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9년 월별 버즈량은 약 2만 건 내외였고 5월과 11월 버즈량이 약 2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

노형구 기자

"우한폐렴의 공포, 반드시 이겨내자"

한국교회연합 성명

한교연(이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30일 "우한폐렴의 공포, 반드시 이겨내자"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온 세계로 번지면서 감염 공포감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30일 현재 확진자 7,700명에 사망자만 170명을 넘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미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평택, 용인, 동해 등 전국 각지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5년 전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를 이미 경험한 상황이라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정보와 환자 정보를 감추는 등 초기대응에 미숙해 오히려 병원 내 감염을 확산시키는 실수를 범했다. 우한 폐렴도 중국 정부가 환자 발생 정보를 감추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심각하게 확산시켰다. 우리 정부는 분명한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확하고 투명한 대응 전략 체계를 조속히 실천해가지 않는 한 국민적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확실한 지휘통제 체계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총리실이 하는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지 일선 병원에서조차 혼동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우한에는 우리 국민들이 별 증상이 없음에도 오가지도 못한 채 발이 묶여있다. 정부에서 전세기를 급파했지만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송환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라며 "일본과 미국은 이미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안전하게 이송 완료했다. 왜 우리는 비행기에 태우기는커녕 공항에 집결하려던 사람들까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는지, 이런 상황에서 주중대사와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원성을 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또 "정부가 우한에서 오는 국민들이 집단 거주할 지역을 천안엣 다시 다른 지역으로 수정 발표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여야 정치 성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비난 수준이 아니"라며 "이를 넘어 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센 반대 행동을 단순 '님비현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지역이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과 모든 중국인에 대해 막연한 혐오감은 자제해달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 성숙한 국민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필요한 때"라 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우한 폐렴에 걸려 치료중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완쾌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된 이 감염병을 모든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노형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적항공사의 中 운항 제한 필요해"

'우한 폐렴' 관련 담화문 발표하고 정부 등에 대책 마련 호소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30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적항공사의 중국 운항 제한"이 필요하다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해외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한 검역관리, 국내 발생 환자의 2차 감염 예방과 적극적 감시, 그리고 최선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제공"이라 밝히고,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위해서는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미 다수의 외국 국적 항공사들은 중국과 자국 간 비행편수의 중단 및 감축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중국 내 환자발생 상황과 위험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별 비행편수의 제한 혹은 중단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철저한 대비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격리시설 밖으로 대기중 바이러스가 전파될 실질적 위험성은 없다"고 했다. 협회 측은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 이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 입자는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 자체 역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신뢰를 담아 보건의료 그리고 독성학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위험성이 없음을 소상하게 알리고, 입국 국민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마스크 등 기본 방역 용품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발열을 동반하는 감염병 환자 진료와 그로 인한 진료 중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마스크와 손세정제의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과 보호마스크 및 손세정제 그리고 의료기관 소독 및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 마스크의 적절한 공급량 유지와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질병당국도 확신 못하는 신종 코로나 '무증상 감염'

국내서 무증상 감염될 경우 치명적

중국 우한에 방문한 적이 없고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해외에서 발생하면서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사람 간 2차 감염 사례가 다수 나타난 가운데 무증상 감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학검색엔진 KMLE에 따르면 감염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해 증세나 질병을 일으키는 증상감염과 증세가 미미하거나 없는 무증상 감염으로 나뉜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이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대부분의 특징은 증상의 정도와 바이러스 배출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의 경우 당연히 확률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본에서는 버스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버스기사는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버스기사는 1월 8~16일까지 2차례에 걸쳐 우한에서 온 단체관광객을 태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는지, 버스에 태운 관광객 중 증상이 있던 사람은 없었는지 등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증상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무증상 감염으로 의심될만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 가능성을 원천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증상 시작 전이라도 전염력이 있다"며 "지금 방역은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접촉자 추적을 하는 것인데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전파력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방역에 하나의 틈이 생겼다는 것이고 앞으로 전파력도 빨라지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이 무증상자로부터 감염이 가능하다고 확인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 확인 사례가 해외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3번째와 4번째 확진자가 격리 되기 전 외식과 병원 방문 등으로 외출을 한 상태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감염력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WHO에 따르면 1명이 감염시키는 인원 수인 재생산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1.4~2.5로 추정한 상태인데 사스는 재생산지수가 이보다 높은 3이다. 메르스는 지역사회에선 0.6, 병원내에선 4 수준이었다.

무증상자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찾는 것도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잠복기 시기엔 바이러스 양도 적고 혈액으로 나오는 양도 적어서 검사로 인지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WHO 문건을 보면 오히려 근거가 없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감염과 무증상 감염 모두 현재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김우주 교수는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입의 점막에 붙어서 호흡기 감염이 시작된다. 피부는 단단한 막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피부에 묻어서는 침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침 에티켓도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면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정도이지 감염예방용은 아니고 KF94, KF99 마스크는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법은 아니어서 KF80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11면 구무서 기자

강경화 "전세기로 30일 밤 中우한 교민 350여명 이송"

두 편 탑승객 1대에 합쳐 수송… 마스크로 보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투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선 한 대만 운영을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애초 30일 두 편에 걸쳐 귀국시키려던 교민 360명 가량을 한 대에 모두 이송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우한 내 700여명의 재외국민 귀국을 위해 당초 (전세기) 2편씩 이틀간 4편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면서 "중국이 우선 1대 운영만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에서 다수 임시 항공편을 요청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를 허가하고 순차적으로 요청받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 보잉747편과 에어버스330편을 통해 교민 절반가량을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한 대만 허가되자 두 편에 나눠 탑승할 예정이었던 교민을 한 편으로 합쳐 귀국시켰다.

강 장관은 "보잉747편은 404석 수용 가능하다. 신청한 국민 700여명의 절반 (귀국을) 목표로 했었다"라며 "2차·3차·4차편도 운영되게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편을 운영하려 했을 땐 옆 간격을 두고 대각형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편수가 줄어들어 1차 원하는 교민을 다 모셔오기로 했다"면서 "다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N95 이상 고강도 마스크로 수준을 높여 기내 감염이나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장관은 "교민 중 확진자는 없고, 귀국을 희망하신 분 중에서도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우한 시내 교통 사정이나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는 제외돼 (실제 숫자는) 탑승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탑승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될 경우엔 "총영사관, 신속대응팀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추후 관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우한 내 이동이 어려운 교민에 대해선 "우한 내 교통이 두절돼 공항까지 개별 교통수단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이 어려운) 개별 케이스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도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선 추가 교통편이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398명은 지금 어디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398명을 찾아내는데 당국이 혈안이 되어 있다.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외국인 중 우한 폐렴 환자가 있다면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30일 12시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398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13~26일 사이에 우한시에서 입국한 3023명을 대상으로 발열 등 건강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3023명 중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은 2991명이다. 이중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이다. 1831명의 외국인 중 1433명은 출국해서 국내 체류자는 398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네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수준으로 올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한 및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비행기와 공항에서부터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될만한 증상이 있으면 그 즉시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로 추정되는 우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톈진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이 검역을 받고 있다. ⓒ 뉴시스

그러나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검역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2차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 중국과 독일, 베트남 등에서는 사람 간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한을 방문한 적 없는 버스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버스기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대상 외국인들의 소재지를 파악해 검역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구무서 기자



임종석 "검찰이 선거개입 수사 그럴듯 기획" 주장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사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 출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이번 일이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반성 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잘못이라 나무랐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입증을 못하면 그땐 누군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만 임 전 실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는지',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자리를 제안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양해를 구한다"며 "구체적인 질문은 조사 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임 전 실장은 외투를 걸치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7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주변에 대기하던 일부 시민들은 "죗값을 치러라",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라", "특혜 부리지 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송 시장에게 선거 출마를 권유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임 전 실장이 VIP(대통령)를 대신해 송 시장에게 선거 출마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힌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8명도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조사가 진행 중인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등 남은 관련자들은 4월 총선 이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인사이동으로 수사팀 상당수가 교체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본 관련자들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아 김가윤 김재환 기자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1월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대법원 심리를 거쳐 약 2년여 만에 다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것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인사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그같은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경우 상대방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일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같은 부분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임 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퇴임 이후 행위까지 포함해 함께 판단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 뉴시스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그간 적폐 수사 등에서 적용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서 공무원 '직권'의 범위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고, 유·무죄 판단을 내림에 있어 하급심에서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우)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렸지만, 소수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내용과 범위가 언제나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앞으로 돌아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10면

이인준 기자



“총신대 조직 개편, 관선 이사회가 효과적”

서울대 행정학 정용덕 명예교수, 예장합동 미래정책세미나에서 밝혀

예장 합동 미래정책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 반에 총신대 사당캠퍼스 종합관 2층에서 열렸다. 예장 합동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주최했다.

서울대 행정학 정용덕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조직 운영은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유주의, 케인즈 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이라며 “국가 개입인지 민간 자율인지가 기준이다. 가령 문체부 종무실, 교육부 관선이사회 등은 국가가 기독교 단체에 개입하는 기구들이다. 국가의 개입여부는 공공차원에서 민간부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라고 했다.


정용덕 박사 ⓒ 노형구 기자

이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예로 들 수 있다. 전국 대학의 서열을 세워 하위 40%는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며 “민간 중심의 미국에선 이상한 일이다. 국가가 굳이 줄을 세워 정원을 줄여라 없애라고 개입하는 것이 그렇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경쟁해서 도태되는 곳은 알아서 도태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직에서 중요한 건 기획이다. 여기서 핵심은 미래전략을 짜는 것”이라며 “미래예측이 사회과학적 틀로 이뤄지는데 과학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된 과학적 사고방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를 현재 적용하기엔 사회는 너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는데 바로 창발성이다. 현대사회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기에 하나의 요소만 제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개념은 붕괴됐다”며 “서양 학계도 전통적으로 인과율에 입각해 원인을 분석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창발성에 대해 정 교수는 “있는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충돌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홍대 앞에 서 인디 밴드가 그들이 하던 방식을 이어가다 갑자기 벼락 스타가 되는 것이다. 비틀스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계획이 개입되면 안 된다. 국가도 개입을 최소로 해야 한다. 그렇게 개인이 알아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어느 시점에서 창의성이 극도로 창발 할 것”이라며 “위계가 강한 곳이 천주교다. 반면 평등주의가 강한 개신교는 조직과 위계 대신 자율성을 강조한 탓에 부흥했다”고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정 교수는 총신대 조직에 대해 조언 했다. 그는 “관선 이사회 체제를 통한 총신대 개혁도 필요하다. ‘Hiddigkian'이라는 말이 있다. 네널란드 히딩크 감독이 제 3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 것”처럼 “관선이사회도 총신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서 총신대 조직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자사고 폐지를 외치는 것이 그렇다”며 “그저 기계적 균등을 통한 나눔만 강조한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와 번영의 결실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원리인데 필요하고 좋은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도 강조하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교수는 문(文)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올리기, 노동시간 줄이기, 대학 강사 처우 개선, 4대 강보 없애기, 탈 원전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시행에 있어 피드백이 없다. 정책을 시행하자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文) 정부는 이런 피드백을 간과하고 있다”며 “일례로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 정책을 생각해보자.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치중하면 자칫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강의 하나도 맡지 못할 만큼 강의력 전반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 예측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 “문(文) 정부가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런 환류를 무시한다면 현 정부는 정책을 실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예배에선 예장 합동 김종준 총회장이 눅 16:1-7절을 설교했다. 그는 “과학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라며 “그러나 과학이 사람의 영혼은 지배할 수 없다. 기독교를 대적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승희 목사(직전 총회장)이 ' 교단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서용석 박사(카이스트 교수)가 미래 연구와 미래 전략의 이해를, 소강석 목사(부총회장)이 ' 교단 교회의 대사회적 미래 정책과 전략'을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평화의 메시지 전한 오대원 목사 “올해는…”

장신대에서 열린 2020 통일코리아선교대회 둘째 날, 오대원 목사(한국예수전도단 창립자)의 성경강해가 있었다. 데이빗 로스(David Ross)라는 본명으로 1935년 미국에서 태어난 오대원 목사는 1994년 안디옥국제선교훈련원을 설립했고, 1972년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전도단을 설립했던 인물이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김운용 교수가 이후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 ⓒ전민수 기자

오 목사는 '평화를 향한 여정'를 주제로 이사야 2장 1~5절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하나님은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땅으로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됨을 원하신다. 우리는 함께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한다"고 강해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 목사는 "선교대회의 주제인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는 우리가 전쟁의 슬픔을 넘어 다시 한 번 하나의 평화된 나라가 되도록하자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제성구인 이사야 2장4절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오 목사는 "먼저 우리는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가? 물어야 하고,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그 답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며"평화라고 번역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Shalom)이고,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 된다"고 했다.

또한 오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성구인 이사야 2:1~5절을 이해하기 위해,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한다"며 "이사야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오대원 목사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나라와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오 목사는 “그러나 이사야 2장은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대해 말하며, 미래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한다"며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한반도를 포함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평화의 길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에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며"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가서 6:8)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강해를 마쳤다.

한편2020 통일코리아선교대회(이하 선교대회)가 2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세계교회협력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기존 ‘통일비전캠프’에서 통일코리아선교대회로 이름을 바꿨다. 첫날 뉴코리아 윤은주 대표가 개회예배의 사회를 맡았고, 김운용 교수(장신대 신대원장)가 설교했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강사는 예수전도단(YWAM)의 창립자인 오대원(David E. Ross) 목사를 비롯해, 김운용 교수, 배기찬 대표(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미미 대표(세계YWCA 부회장)다.

선교대회는 성경강해와 메시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단체들의 발표와 5개의 선택강의로 진행된다. 준비되어 있다. 2월 1일 폐회한 후에는 DMZ도 탐방한다.

전민수 기자

“‘동성애 반대자’ 혐오하는 김근주 교수 주장 경계해야”

반동연 “동성애자 ‘우상화’시키는 반성경적”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동성애 반대자'를 혐오하는 '동성애 옹호자' 김근주의 비성경적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동연은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그(김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지향이기에 함부로 비판해선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망언(妄言)"이라며 "그러한 왜곡된 인식의 기반에서 그는 성경말씀을 제멋대로 난도질하는 망동(妄動)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성경말씀을 자신이 믿는 '특정 성서해석학의 관점'으로만 해석한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자를 폄하하고 혐오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자신의 신념을 과잉일반화하며 대척점에 선 이들을 교묘하게 투박한 교양어로 '헛소리'인 양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동성애 독재'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와 삭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서슴없이 폄하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맥락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겪을 심각한 역차별과 '독재입법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이다. 만일 이를 알고 그랬다면 매우 지능적인 반동성애 활동 저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은 "그는 성경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유독 동성애 문제에만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시대 상황과 문화 등 ' 맥락'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며 "그의 논리 전개를 보면, 동성애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해선 어떤 윤리·도덕적 잣대나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높은 방어벽을 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논지에 현혹된 이들은 그 '특별한 존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에게 반감을 갖게 되고, 맹목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혐오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혐오를 비판하는 그들이 도리어 '극도의 혐오'를 양산하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거짓선지자의 세 치 혀가 얼마나 무서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전개에 불과하며, 동성애자들을 인정함은 물론 '우상화'시키는 반성경적 작태'라고 했다.

반동연은 "게이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교회파괴 공작'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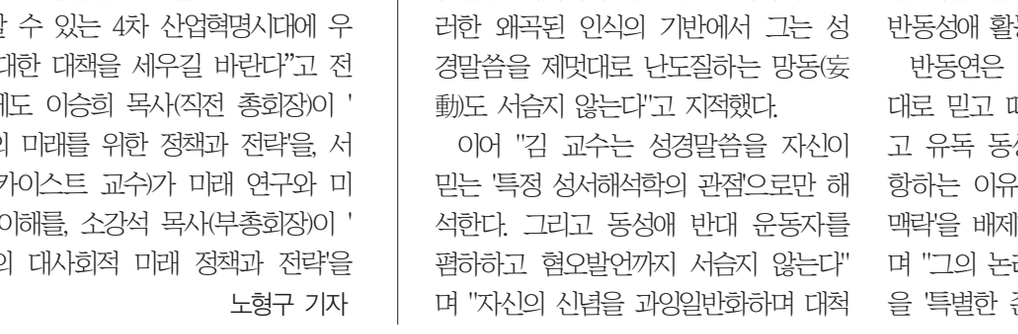
전민수 기자

실용신안등록:제 20-0473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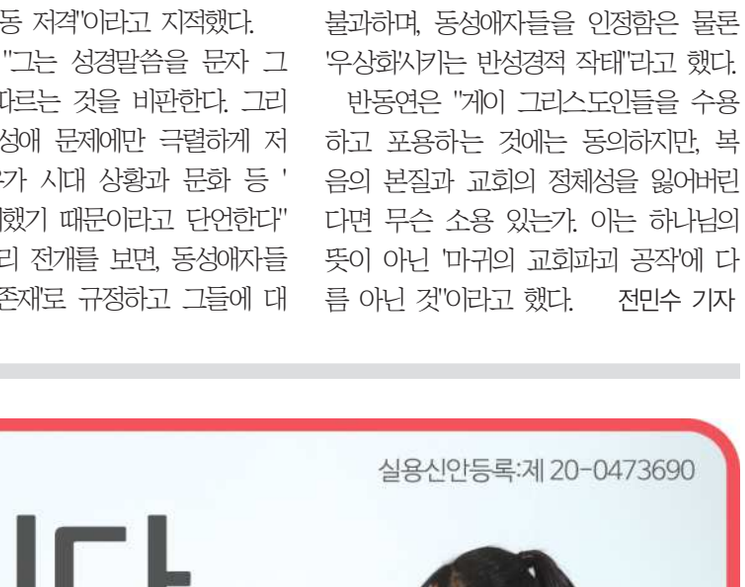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여 하루 종일 무릎을 꿇어도 편안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검정래자:55,000원 / 황토색래자:55,000원 / 검정색팔걸이:75,000원 / 황토색팔걸이:75,000원


검정천연가죽:100,000원 / 브라운천연가죽:100,000원 / 검정팔걸이천연가죽:125,000원 / 브라운팔걸이천연가죽:125,000원


앉은 모습

오래 기도의자가 좋은 이유!!!

1.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2. 집중력이 향상된다.
3. 머리가 맑아진다.
4. 허리가 펴지고 척추가 편하다.
5.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6. 높낮이 조절로 편안합니다.

네가 나와 한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소유자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입에는 기쁨과 찬송이,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는 것마다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힘들고 환난은 끝이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여 년 동안 나를 괴롭힌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난 신앙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님의 치매, 이혼, 자녀의 발달장애 등의 무거운 마음의 짐은 저를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 싫거든 하루에 한 시간씩 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고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다윗, 솔로몬, 다니엘, 에스라,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10분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기도의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기도의자로 무릎 꿇어 당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여 믿음도 생기고 환난을 이기는 지혜도 생기고,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과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개발자올림

오래 문의전화: 010-88888-070 홈페이지: www.kneechair.modoo.at 회장: 성부하나님 대표이사: Jesus Christ 전무이사: 성령님

“미국의 진정한 힘, 하나님 향한 기독교 신앙”

이춘근 박사 구국기도회와 신앙 강연회


구국기도회와 신앙 강연회를 인도하는 이춘근 박사


강연회를 준비한 관계자들이 이춘근 박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춘근 박사 초청 구국기도회와 신앙 강연회가 최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주제로 시온 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진행됐다. 미주CBMC서부총회(황선철 총회장)와 미주연세대총동문회(이형숙 회장)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강연회에서 이춘근 박사는 기독교가 세계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와 미국의 건국이념, 미국 대통령들의 신앙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등을 거시적 안목으로 소개했다.

특히 그는 올해가 미국 대선과 맞물려 핵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전망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과 내구력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는 사실도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로 자유와 천부인권을 기본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상이 나라의 뿌리가 되는 국가"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향한 기독교 신앙으로, 역대 대통령 모두 기독교를 종교로 가졌지만 현재 트럼프 내각은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역사상 가장 복음적인 행정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시편 133:1 인용과 어릴 적 어머니가 선물로 주셨던 성경책과 그 밑에 상자로 보관된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사회주의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내구력이 떨어진 북한을 상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회를 준비한 황선철 회장은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공공, 노동, 일자리, 복지, 교육, 인권 등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남북 간의 긴장 고조와 좌우 이념갈등, 정파적 이해관계는 국민들을 심각한 대립과 세대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 눈물과 기도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았던 초기 이민 선조들을 따라 고국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정치 해설가로 유명한 이춘근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하고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중국적 국제질서 하에서의 전쟁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 국제사무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고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 동문의 밤’ 화합과 발전 다짐

1977년 개교 이래 500여 동문 전 세계서 사역


2020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 동문의 밤' 행사를 마치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 동문회(회장 박종희 목사) 주최 '신년 동문의 밤'이 지난 20일, 미주장신대 내에 소재한 '아름다운 동산교회'(담임 최명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의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과 교제 순서로 이어졌다.

38대 동문회장인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선교회 대표)는 "미주장신대는 1977년 개교 이래로 배출한 500여 명의 동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며 "동문회의 가장 큰 역할은 선후배 동문 간의 가교 역할"이라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이어 "38대 임원단은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주장신대 동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협력하고 사랑과 배려,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동문들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1부 예배는 동문회장 박종희 목사의 인도로 전우진 전도사의 찬양인도, 김덕애 목사의 기도, 김일권 목사의 성경봉독(에스라 8:21-23), 이영진 목사의 특별찬양, 이성희 목사의 설교, 민준기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양기호 목사가 축사를 한 후 고영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추지훈 전도사의 사회로 이어진 2부 만찬과 교제에서는 우상림 목사가 식사기도를, 오충성 목사가 동문 소개를 한 후 유쾌하고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명한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이성희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험난한 여정 내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했다"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과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준기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목회의 길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며 "동문회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이니 힘을 내서 서로를 돕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양기호 목사는 "미주 장신 동문회의 회원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 해 미주 장신 동문회는 신년 '동문의 밤'을 시작으로, 2월 모교 홈커밍데이, 3월과 9월 모교 신앙사경회, 5월과 9월 동문 야유회, 6월 모교 졸업식과 신입생 환영회, 10월 동문회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38대 회장단은 회장 박종희 목사(29회), 부회장 오충성 목사(32회), 총무 유영민 목사(38회), 서기 유미숙 목사(32회), 부서기 이순애 목사(35회), 회계 차유니 전도사(35회), 감사 김정태 목사(35회) 등이다.

정에스더 기자

장경동 목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LA 동문교회 신년 말씀 부흥성회 인도


장경동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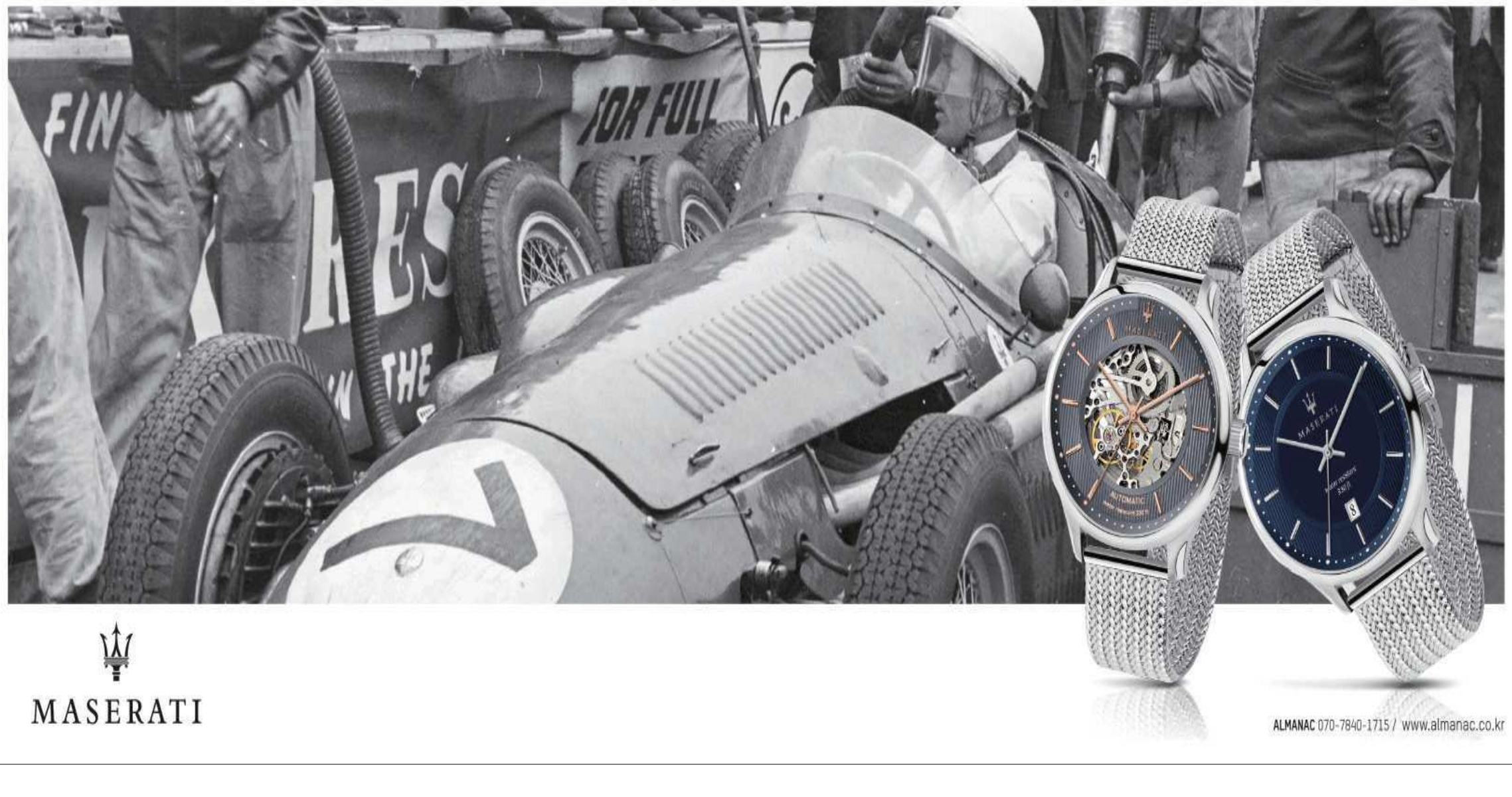
최근 기독 자유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정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가 LA에서 신년 말씀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동문교회에서 신년 부흥집회를 인도한 장 목사는 특유의 재치와 시원한 입담으로 믿음을 통한 구원과 성도의 구별된 신앙생활을 권면했다.

장 목사는 "인생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이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 목사는 "먼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간증을 남겼다"고 했다.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면서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경동 목사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을 비롯해 한국에서 포섭된 간첩 등 대한민국에 간첩이 만연하다. 심지어 언론계에도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다"며 해외 한인 교민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정규용 목사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존할 수 없어”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신앙,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한반도 공산화 대적해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차 LA를 경유한 정규용 목사(부산 새소망교회)를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정규용 목사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실제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 매일 추위와 싸우며 노상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다.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기도로 저항하는 분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것 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하지만 안으로는 더 부패하고 진실을 감추고 있다. 평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하고 공산화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공산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이렇게 약속해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산화, 왜 우려하나?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국가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한 곳이라도 있나? 역사적으로 공산화 운동에는 '종교 말살'이 필수적으로 수반됐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이요 반신론적이며 반기독적인 운동이다.

소련이 공산화된 이후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된 사람이 2천700만 명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를 보라.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해 백성들을 숙청하고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1953년, 분단이 고착화되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역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지금도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야욕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화를 대적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정규용 목사는 "현 정부가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끌고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독일보

-이런 위기를 맞게 된 데에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나?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세상을 깨우고 진리의 빛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계기로 한국 교회가 많이 깨달았다.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를 모르면 국민이 방종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현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 공산당의 6.25 침략 전략을 오히려 남쪽에서 먼저 공격을 감행한 북침이라고 가르치며 역사를 왜곡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건져낸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제국주의자라고 가르친다. 마치 미국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안 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처럼 가르친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 1950년 바로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 당시 미군과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됐다.

우리가 아는 주사파 사상이란 너무나 무서운 사상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주사파와는 성경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역사를 모르니 그들의 주장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역사관이 바로 심겨야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교회와 신앙도 지킬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가 바른 역사관의 터 위에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야 한다. 좌우를 떠나서 기독교와 교회가 위협을 당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기독교다. 순교의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적이고 모두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면에는 절대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나? 불신자도 애국 시민들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저항하는데..."

-세계 선교 비전으로 중국에서 신학교도 운영하셨다.

"조선족과 한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다가 최근에 쫓겨났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는데 중국 공산당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시켰다.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신학교육도 예전처럼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정기적으로 들어가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미주 한인교회 많이 돌아봤는데 느낀점은?

"예전에 비해 한국 이민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주 한인교회도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에 연연해 목양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민 교회와 목회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김동욱 기자

납치된 기독교 소녀, 보코하람 지휘관 아이 낳았나?

가족이 주장하지만 소문일 뿐이라는 견해도

나이지리아 북동부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던 10대 기독교 소녀 레아 샤리뷰(Leah Sharibu)의 가족이 자신들의 딸이 보코하람 지휘관의 아들을 낳았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다고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샤라 리포터(Sahara Reporters) 뉴스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러나 이 가족의 대변인이자 조스대학(the University of Jos) 강사인 글로리아 풀두(Gloria Puldu) 박사는 이 보도가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는 펀치(The Punch)라는 매체에 "레아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레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펀치'는 샤리부가 2018년 2월 답지(Dapchi)라는 나이지리아의 마을의 한 학교에서 110명이 넘는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납치되었다고 했다. 이후 5명의 소녀들이 죽었고 다른 모든 소녀들이 결국 풀려났지만 샤리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보코하람에 의해 계속해서 억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풀두 박사는 "그 소문이 사실이던 아니던 샤리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딸을 살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만약 그녀가 살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그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녀를 석방해야 하며 임신했는지 아기를 이미 낳았는지가 중요하기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녀의 삶과 안전뿐"이라고 전했다.

미국 민간단체인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을 구하자'(Save the Persecuted Christians, SPC)의 디디 라우제슨(Dede Laugeson) 전무이사는 "샤리부의 삶은 '연속적인 공포, 폭력, 정신적 고통, 강간의 끔찍한 상태'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SPC는 지난해 6월 사리부의 어머니 레베카를 워싱턴 D.C.로 데려오고 샤리부의 석방을 돕기 위해 나이지리아 국제위원회 및 '레아 재단'과 협력했던 단체다.

라우젠슨 이사는 또 "레아와 실종된 피복 마을 소녀들, 그리고 납치되어 고문당하고 죽은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의 기독교 소녀들의 이야기는 잊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미국 오픈도어의 '2020년 세계기독교박해목록(WWL)'에서 12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 오픈도어는 2020년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은 것은 거의 없었지만, 이는 보코하람이 살해보다 납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연숙 기자



레아 샤리뷰



변화하는 통일민 교회, 다문화 목회를 고민하다

〈탈북민〉

2020 통일민 목회자 부부 수련회서 모색

국내 이주민 300만 시대를 앞두고 지역 및 언어권별 예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봉사활동 등 이주민 선교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교회가 늘고 있다. 이러한 다인종·다민족에 대한 이슈는 비단 한국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통일민(탈북민)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벌써 체감하는 현실이다.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금천구 산돌중앙교회(김연정 목사)에서 '다문화 사회와 통일민 교회 목회'를 주제로 2020 전반기 통일민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노보 노스코리아(NOVO North Korea)의 대표 서예레미야 선교사는 "탈북민 교회들도 이미 다문화가 되었다"며 "남한 성도와 북한 성도들의 문화가 제가 느끼기엔 거의 외국인 수준으로 다르고, 최근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중국인 남편들을 데려온 장년 탈북민 교인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또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어만 하는 탈북민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선교사는 "여기에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다문화 현상을 인식하고 연구하며 대처하기 위해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탈북민 목회자 18가정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산돌중앙교회가 후원하고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북기총), 통일소망선교회가 협력했다. 이빌립 북기총 회장(통일소망선교회 대표)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이들이 데리고 온 중국인 남편들, 또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포괄적으로 품어야 하는 사역임을 알게 되면서 탈북민 교회가 선교적, 역사적, 목회적 관점에서 다문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28일 수련회 첫날 오전에는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특강 및 목회상담아카데미 소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다문화대안학교인 아메라시안 크리스찬 학교(ACA, Amerasian Christian Academy) 교장 강성철 선교사가 ACA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역'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탈북민 청소년, 청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 심양섭 교장이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 교육과 북한선교'에 대해 특강을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성경의 잣대에 비춰 문화를 구별하여 받아들이는 '비평적 상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심양섭 교장은 "다문화는 문화 다원주의이고 한발 더 나아가면 종교다원주의가 되기 쉽다"며 "예를 들어 이슬람이 들어올 때 이슬람의 문화, 곧 일부다처제나 일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과 문화, 종교가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관, 문화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헌법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교장은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가야 한다"며 "다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되며, 한국교회도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노보 노스코리아 대표 서예레미야 선교사, 아메라시안 크리스천 학교 교장 강성철 선교사, 산돌중앙교회 김연정 목사, 남북사랑학교 교장 심양섭 교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이지희 기자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과 힌두 국가인 네팔에서 선교했던 김연정 목사는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기독교를 인구 5%의 집단으로 만들려 하지만, 오랜 세월 종교와 문화가 하나 된 국가들은 결코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기독교가 확장하면 억압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런 가운데 불교와 유교, 기독교 중 어느 종교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한국의 경우 한국교회의 책임이 더 커진 것 같다"며 "세상은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교회는 교회 고유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세상을 향해 변혁과 치유를 해나가야 한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국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마땅히 지원할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부터 하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자녀 중 북한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혜택과 지원,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기업, 시민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예레미야 선교사는 "한국어를 못 하는 한족이나 조선족 남편, 탈북민 아내, 북에서 태어난 자녀, 또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가정에 모이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고, 탈북민 교회도 이미 다문화 되고 있다"며 "제3국, 즉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만을 위한 대안학교가 세워지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정 목사도 "탈북민 교회가 다문화되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국교회와 학교 등이 서로 도와주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우리가 다원화된 시대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고유한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가 통일하겠다면서, 탈북민을 사역자로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탈북민을 적극 양육하여 다문화 시대,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다.

한편, 이날 저녁 집회에서는 서경화 향연교회 목사의 간증과 김연정 산돌중앙교회 목사의 설교 후 이빌립 북기총 회장의 기도회 인도로 영적 회복과 부흥을 놓고 기도했으며, 29일에는 서예레미야 선교사의 '통일민교회의 미래와 사명' 강의, 이사랑 주찬양교회 목사의 목회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행사를 후원한 산돌중앙교회 김연정 목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탈북민 목회자들이 더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보코하람에 납치된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회장 결국 살해당해

안디미 목사, 보코하람이 공개한 영상서 유언 남겨

지난 1월 초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에 납치된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회장 라완 안디미(Lawan Andimi) 목사가 순교했다.

보코하람은 지난 1월 3일 아다마와주 미치카 지역을 급습해 마을을 약탈한 뒤 안디미 목사를 납치했다. 이들은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 포로로 잡힌 안디미 목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지만, 원하는 몸값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사건을 추적 조사해 온 나이지리아 기자에게 안디미 목사를 살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안디미 목사는 보코하람이 촬영한 영상에서 보코하람 깃발 옆에 앉아 담담한 목소리로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저는 여전히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친구들 곁으로 갈 것"이라며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며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한 듯 유언과 같은 영상을 남겼다.


보코하람이 공개한 영상에 인질로 등장한 안디미 목사.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현숙폴리 대표는 "보코하람은 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 영상은 안디미 목사님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다"며 "안디미 목사님은 영상에서 매우 평온하다"고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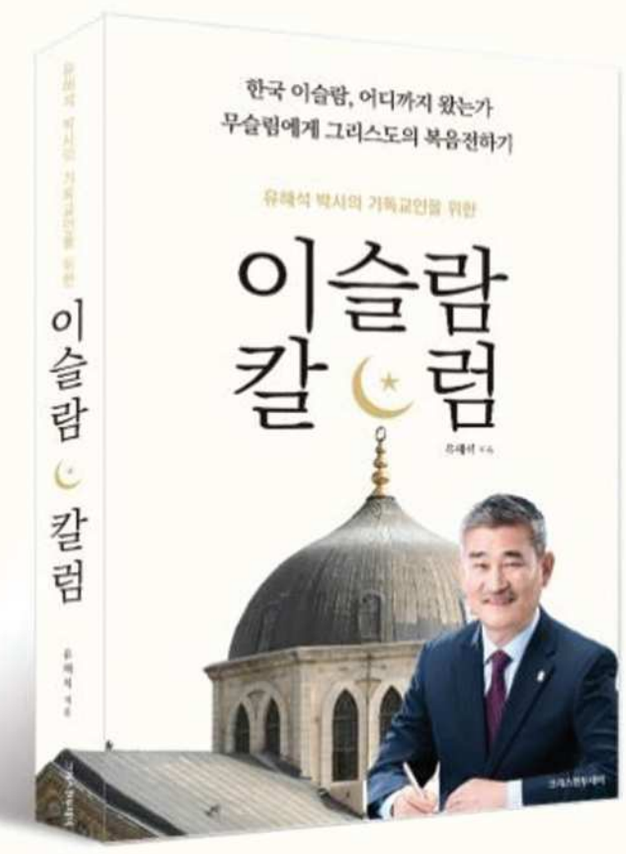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에는 카두나주 카사야 마을을 급습해 조슈아 사마일라(Joshua Samaila) 목사와 교인 40명을 납치했다. 작년 성탄절에는 기독교인 10명을 참수하고 무슬림 1명을 총살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 VOM은 "보코하람의 폭력과 위협 속에서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다"며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는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VOM은 2월 소식지를 통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겪는 박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02-2065-0703).

이지희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유해석 박사의 기독교인을 위한 **이슬람 칼럼**
유해석 지음

유해석 박사의 기독교인을 위한

이슬람 칼럼

"오늘의 유럽은, 내일의 한국이다!"
"이슬람은 이단인가, 타종교인가?"

다문화 시대,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슬람도 기꺼이 포용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슬람은 오늘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에 대한 탁월한 대안!
정일웅 박사 (총신대 전 총장)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
김경원 목사 (서현교회 원로, 한목협 전 대표회장)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며 체득한 몸의 언어, 바로 이 책입니다!
소강석 목사 (예장 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 살아있는 글!
안민 총장 (고신대)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중동 평화 협상안' 발표

트럼프 대통령 '중동 평화 협상안'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백악관에서 '중동 평화 협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Official White House Photo/Shealah Craighead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동 평화 협상안'을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협상안은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분리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수도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1967년 일어난 제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197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수립된 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힘겹게 살고 있다. 때문에 세계가 이들의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협상안에 따르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앞으로 4년간 중지되는 대신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수도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함께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역시 그들의 독립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토가 분쟁의 상징이 아닌 영원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성지의 영광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협상안에 따라 이 지역은 비무장화되어야 하며 서안 지구와 가자(Gaza)를 연결하는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일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메시아닉 유대인 학자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 땅을 분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므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2국가 해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통령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호의적인 입장"이라며 "참된 평화는 예수를 통해서만 이 지역에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팔레스타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바그다드에서 프랑스 구호 활동가 4명 실종

"이라크 내 기독교인 안보 위험 증가"



©FRANCE 24 유튜브 영상 캡처

바그다드에서 프랑스 비정부기구 자선활동가 4명이 실종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프랑스24'라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지난 20일 바그다드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서 이들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동의 크리스천들'(Christians of the Middle East) 대표인 벤자민 블랜차드 (Benjamin Blanchard)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명의 프랑스인이 실종됐으며 1명은 이라크인"이라며 "몸값 요구는 없었으며 보안상의 이유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이슬람 국가(IS) 원리주의자들이 모술 지역을 점령하고 기독교인 수만명이 쫓겨난 후 이라크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일해왔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주한 쿠르드족의 도시인 아르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블랜차드 대표는 "실종된 활동가들은 비자를 갱신하고 학교 개설을 포함한 도시에서의 활동을 이라크 당국에 등록하기 위해 바그다드를 방문했다"면서 "이들은 분쟁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멤버들이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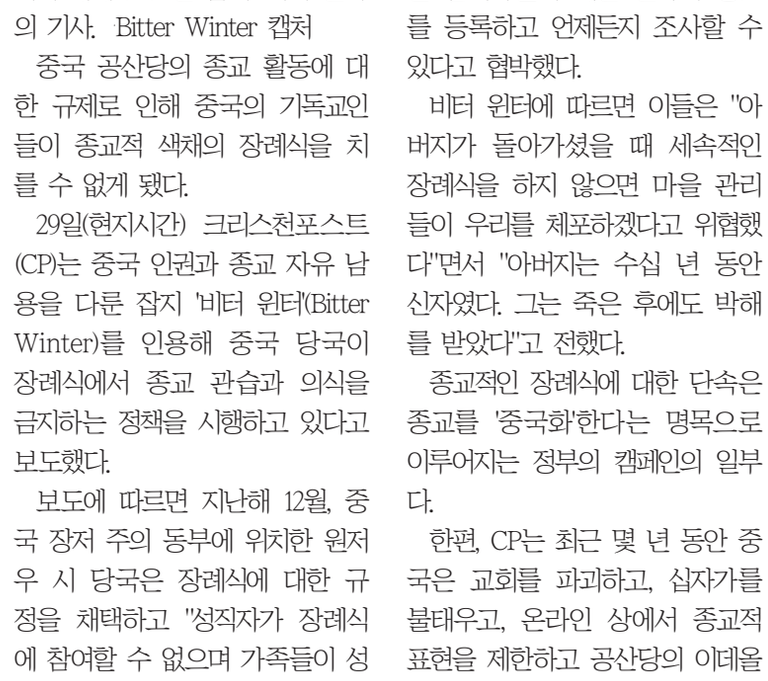
이 단체는 트위터를 통해 실종된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 기독 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납치 사건이 빈발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달 초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사령관인 케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Abu Mahdi al-Muhandis) 등이 사살 된 후 점점 더 환영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ICC는 "이라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심각한 안보 위험에 처해있다"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원조와 수용자들에게 환경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 USA는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세계 감시 목록 50개국 가운데 이라크가 15위에 올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IS)가 이라크에서 추방됐지만 그들의 이념은 여전히 남아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평화를 되찾았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갈등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미경 기자

中종교 장례식 금지…"죽어도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



Christians Not Allowed to Hold Religious Funerals

01/24/2020 LI GUANG A+ | A-

Rules and regulations prohibiting religious funerary rituals are being adopted across China, as the government promotes "civilized secular" traditions.

by Li Guang

Expanding the measures to suppress people of faith, authorities throughout China are enforcing policies that prohibit religious customs and rituals to be used during funerals. Xinjiang Muslims have been banned from commemorating the dead according to their faith, and Christians ordered to stay away from religion during burials. More reports from across Chin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oppressive rules.

중국 정부의 종교적 장례식 금지에 대해 보도한 잡지 '비터 윈터'의 기사. ©Bitter Winter 캡처

"종교 '중국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정부의 종교적 장례식 금지에 대해 보도한 잡지 '비터 윈터'의 기사. Bitter Winter 캡처

중국 공산당의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로 인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색채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CP)는 중국 인권과 종교 자유 남용을 다룬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장례식에서 종교 관습과 의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장저 주의 동부에 위치한 원저우 시 당국은 장례식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성직자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가족들이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과학적이고 문명적이며 경제적인 장례식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세워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허난 주 중앙 지방의 한 마을 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지방 정부가 종교 업무 보조원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종교 장례식이 제한되니 따를 것을 공지했다"고 한다. 그 후 성직자들이 시민의 결혼식과 장례식, 또는 일상생활의 다른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표됐다. 교회는 반발했지만, 당국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

우한에서는 경찰이 정부 규제를 받는 삼자교회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고 있던 딸을 체포했다. 이틀 후 고인이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지 않고 매장된 후에야 딸은 풀려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허난성에서는 당국이 기독교식 장례를 거행하던 11명의 참석자들을 해산시켰다. 당국은 참석자들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등록하고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비터 윈터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세속적인 장례식을 하지 않으면 마을 관리들이 우리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신자였다. 그는 죽은 후에도 박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종교적인 장례식에 대한 단속은 종교를 '중국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캠페인의 일부이다.

한편, CP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온라인 상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고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도록 성경과 찬송가를 다시 쓰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월부터 6개 장과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항에는 연간 일간 프로젝트를 포함한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 5조항에는 "종교단체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헌법과 법률, 규체, 원칙, 정책을 지키고 독립 및 자치 원칙을 준수하며 중국의 종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해 감시 단체 국제 기독 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이같은 조례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종교 단체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는 일체의 불의한 타협을 결사 반대합니다.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방법**

● 경기도민 유권자 총수의 1%(약 10만 7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청에 제출하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

● 도민 발의(조례개정청구) 개정안 주요내용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
- 종교 단체, 교육기관에서 LGBT 강요 삭제
- LGBT 옹호·조장 활동을 도민 혈세로 지원 삭제

● 서명기간: 2020년 1월

● 서명 방법
서명지가 필요하신 분은 서명 안내
블로그(bit.ly/2WYxfqo)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서명 진행 후 아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보내실 곳: (우)1398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3-1 조례개정청구 대표자 박종호

문의 담당간사 010-2036-9192

나 한사람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서명에 모든 힘을 모아주십시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다시금 세계 전염병 원흉 된 '박쥐', 바이러스와 40년도 함께 간다고?!

"바이러스 근원 알지 못하면 계속 확산 될 것"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의 진원은 '박쥐'로 추정된다. 2003년 중국에서 발발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관박쥐,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는 과일박쥐, 메르스 바이러스의 원조 숙주는 이집트무덤박쥐였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박쥐는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도 생명을 유지하는가로 넘어간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해 박쥐가 어떻게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능력을 갖게 됐는지, 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면역체계를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의 콜린 웹 교수는 2013년 영국 '왕립학회보B'에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는 137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61종에 달한다. 박쥐 종별로 평균 2.71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며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는 평균 1.79종 상당이다. 그런데도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는 경우가 적다.

중국과 싱가포르 공동연구팀이 2018년 세계적인 감염 면역 연구분야 학술지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Cell Host & Microbe)'에 발표한 논문에 이에 대한 답이 나온다. 박쥐는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동물이다. 박쥐는 비행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다. 심지어 일반적인 포유류의 경우 세포의 DNA가 손상되지 않는 체내 부분에서도 DNA 손실이 발생한다. 바로 이 손실이 박쥐가 살아남는 핵심이다. 논문에 따르면 박쥐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염증 자체가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숙주가 되는 법을 익힌 것이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박쥐와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 내용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작년 봄 중국과학원의 한 연구팀이 박쥐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취재에서 "박쥐는 다음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의 원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연구팀은 당시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다음 질병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는 '통념'에 가까웠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이 사람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종이 매우 다양하다는 데 있다. 박쥐의 종은 1000종이 넘는다. 포유류 종의 4분의 1이 박쥐다. 한 동굴에 여러 종이 살고 있어 서로에게 바이러스를 빠르게 옮긴다. 두 번째는 이들은 넓은 분포에 있다. 박쥐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살고 있다. 이들의 비행 능력은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쥐는 작은 포유류로서 이례적으로 오랜 수명을 자랑한다. 박쥐들의 평균 수명은 약 40년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추운 러시아 시베리아에 사는 박쥐들은 약 41년을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큰갈색박쥐(Big brown bat)는 야생에서 20년을 산다. 비슷한 크기의 포유류인 집쥐 등의 평균 수명이 2년 안팎임을 감안하면 놀랄 정도로 길게 사는 셈이다.

미국 비정부기구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의 피터 다작 박사는 박쥐에 대한 연구와 추적 관찰은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바이러스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소리 기자

30일 세운 대법원 '직권남용죄' 기준, 조국은 불리해지고 양승태는 유리?



차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공무원에게 특정 인사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지원 배제 관련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한 것 등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직권남용 관련 하급심에서는 위법 부당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리됐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지시에 따라 행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도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이 그동안 모호하다고 해석된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의 '직권' 범위와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세우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직권남용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 중 핵심은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 권한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법관들의 행위가 과연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도 직권남용죄 적용에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핵심은 직권남용죄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의 위법 부당 지시가 직권남용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오히려 단단해졌다는 분석과 특감반원의 감찰 중단이 '의무 없는 일'인지도 따져봐야 해 혐의 입증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날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포스코 펜싱팀 창단 과정 관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같은 유죄 판단이 적절한지 엄격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스 실소유'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 판단을 판결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옥성구 기자

작년 11월 역대 첫 '자연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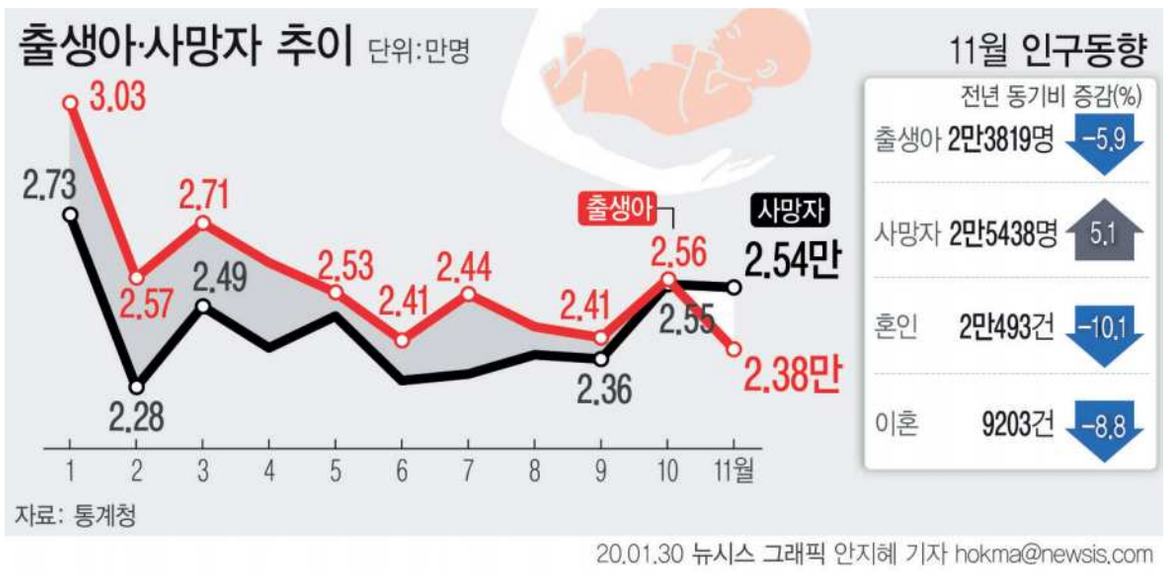


사진1: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1년 전(2만5301명)보다 1482명(-5.9%) 줄었다. ⓒ 그래픽=안지혜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통계 당국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지난해 11월로 출생아가 44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1년 전(2만5301명)보다 1482명(-5.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상 출생아 수를 비롯한 인구 관련 통계는 계절성을 고려해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5년 12월부터다. 역대 최저치를 찍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 4월부터였다. 이때부터 작년 11월까지 44개월간 최소 기록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역시 11월 기준 역대 최저다. 조출생률이 5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1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238명(5.1%) 늘어난 2만5438명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2년(8.0%)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다. 11월 기준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집계를 시작한 2000년부터 매년 5명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6.0명으로 기록하며 6명대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1619명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월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은 2017년 12월(-1736명)과 2018년 12월(-3756명)을 제외하면 집계 이래 없었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처음이다. 자연증가율은 -0.4%를 기록했는데, 2018년 12월(-0.9%) 대비해선 작지만, 2017년 12월(-0.4%)과 같았다. 장서우 기자



"입국 교민, 무증상 감염 여부 명확하게 확인 계획"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우한시 입국자 전수조사 진행 상황에서 내국인 65%는 모니터링 중인데 나머지 35%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매일 전화를 하고 있지만, 날짜마다 모니터링 비율이 다르다. 평균 65~70%가 연락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소재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다."

-확진 환자 4명의 상태는 어떤가. 특히 네 번째 환자는 어떤 상태기에 집중 관찰을 하고 있는 건가.

"4명의 환자들 중 1~3번 환자 세 분은 열도 떨어지고 증상도 많이 호전돼 안정적인 상태다. 네 번째 환자분은 최근에 진단을 받으셨고, 폐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 등 폐렴 치료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주치의에게 들었다."

-전세기 승무원들도 격리가 되는 건가.

"승무원이나 그곳에 가셨던 분들과 우한시에서 계셨던 교민들은 위험지역에 노출되셨기 때문에 무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14일간 격리 관찰을 해야 한다. 다른 분들도 하루에 체온을 2번 측정하는 등 능동적인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검진방법 도입한다고 했는데 일단 1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2차는 오송에서 확진을 해야 되는 거고, 키트를 돌리더라도 오송에서 확진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시겠다는 건가.

"초기 사례들 중 몇 사례는 더블체크하는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확진 사실이 맞는지를 양 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검사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혹시 검사 대상자들이 이번 명절 때 많이 늘어서 겪는 업무상 어려움은 없나.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신규 바이러스라 상용화된 검사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약과 이런 자체 검사법으로 그동안 검사를 진행해 왔고, 전국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4시간 가동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도 검사담당자들의 노고가 크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 검사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으로 이관되면 검사 역량이 확대되고,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천·아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 이들의 우려를 덜 방법은 없나.

"임시생활시설로 오시는 교민들은 중국 당국의 검역 그리고 우리나라 검역관들과 또 의사가 가서 출국검역, 비행기 안에서 다양한 예방조치가 취해진다. 또 도착 이후 입국 검역 단계를 거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치가 될 예정이다. 시설에서는 외부인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화장실이 딸린 1인실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담당의사와 간호사, 관리 인력들이 들어가서 매일 체크를 하고, 의심증상자가 나오면 적절한 격리병원으로 옮겨서 진단과 치료를 받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고려 중인 것은 생활시설 도착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일제히 확인해 혹시라도 있을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 명확하게 감염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검사의 정확도는?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장) 자체 평가한 것에 따르면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100%로서 상당히 우수한 검사법으로 확인했다."

-운행일정 변경으로 교민들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앉지 못하고 나란히 앉는다고 하는데, 마스크로 충분한 건가.

"거리를 두고 비행기 좌석을 앉히는 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 마련했지만, 지금 중국 당국의 허가 변경으로 1대가 가는 것으로 들었다. 오실 때에도 일단 무증상자만 탑승하신다라고만 알고 있다. 그리고 승객분들이 모두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손소독제를 드리고 또 교육과 그리고 비행기를 환경 티슈로 소독하는 등 엄격한 감염 관리 과정을 거쳐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도착하시고 나서도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먼저 확인하고 선조치를 하는 보완책들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3분마다 환기를 한다거나,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비행기 내부 환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비말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14일 수용에 동의하셨나.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생활하시고 정부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로부터 들었다."

-사례 정의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고 역학조사가 힘들지 않나?

"사례 정의는 그때의 유행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은 유행지역을 주로 후베이성이 가장 고위험지역이고 그 밖에 중국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사례 정의를 개정을 한 바가 있다. 전 세계적인 유행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맞게 유행지역도 확대가 될 것이다.

확대가 되는 것은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 유행지역 범위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길 경우 똑같은 유행지역이라고 판단되면 확대할 예정이다. 물론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최대 확진자는 몇 명까지 발생할 것인지 시나리오도 마련돼 있나.

"현재 전문가들과 같이 유행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측을 하고 있다. 어떻게 유행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조건들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아직은 유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와 좀 더 나은 시나리오, 다양한 옵션을 마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침이 있다. 우리가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판데믹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부분은 환자에 대한 병원 입원치료에 내용이 많을 것이다."

-판데믹 플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환자 몇 명을 담당할 수 있다고 나오나.

"그런 건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역학 통계학자들의 논문들도 꽤 있다.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치명률과 전파력, R0값이라고 하는 재생산지수의 전염력 크기에 따라 환자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들은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이 꽤 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채택할 거냐, 어떻게 전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유행의 규모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전반적인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인 특성을 보기에는 부족한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WHO가 긴급위원회를 열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보고 있다."

-일본이나 태국, 중국에서 완치 사례가 조금씩 나오던데 우리는 혹시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나.

"지금 확진 환자 4명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증상이 좋아지고, 유전자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 확인되면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아직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 조건을 맞추게 되면 격리해제를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해제와 입원, 퇴원은 좀 다르다. 격리해제는 감염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이고, 퇴원은 여기에 임상증상 호전까지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 베트남에서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강화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등을 고려하고 있나.

"독일, 일본, 베트남에 꽤 있지만 아직은 해외 유입 후 진단을 받기 전 가족들과 접촉한 밀접 접촉자 범위 내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지역사회 전파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지역에 대한 검역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행국가라 판단할 경우에는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발병통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 중국에서 확진환자 통계와 함께 의심환자 통계도 같이 내고 있고, 밀접 접촉자 통계를 같이 내고 있다. 의심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진단을 신속하게 못하거나 아니면 진단 중인 환자들이 의심환자로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해서 넓게 보면 통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신고 같은 것도 그 나라의 감시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신고 환자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초기에 기침을 하거나 발열 상태인 초기 환자들까지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민 이송 중 교민이 유증상자는 아닌데 교민 보호 위해 질본이나 복지부에서도 파견되는지. 현지에서 영사관이 유증상자 교민을 보호하겠다고는 했다.

"유증상자 교민은 저희가 국내의 안전성을 비롯해 무증상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송은 어렵다. 현지에서 총영사관 중심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료진 파견도 아는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양한 대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환자에게서 채취한 바이러스 배양 중이라고 들었다. 연구 결과가 저번에는 배양 중이라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나.

"(이상원 감염병진단관리과장) 바이러스의 배경에는 보통 2~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린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배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 개발에 환자분들의 그런 양성검체를 이용해서 진단법을 빨리 세팅해서 진단하는 것을 1순위 연구개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내일 1차 도입하고 오는 2월5일에 2차 검사법을 오픈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임상적인 연구, 환자의 특성, 치료법 개발, 어떤 항바이러스제가 효과적인지를 찾는 것 등 임상연구들도 준비하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현재는 기획하고 있다. 연구를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중인 2991명 중 외국인은 현재까지 몇 명 조사가 된 건가.

"외국인들에 대해선 여권번호를 가지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국내체류지 확인 진행 중이다. 체류지가 확인이 된 정보들은 지자체, 경찰청, 관계부처 공동으로 현 위치와 현 상태 조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재훈 기자



[진요단 칼럼]

한국교회의 미래와 책임



진요단 목사
선교의교회

한국교회의 미래와 책임은 막중한 임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통이 예견되는 바입니다(히 10:25) 개혁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 4:17).

1.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본질의 회복이라고 보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회복이라고 말하며, 오직 믿음의 회복이며, 오직 은혜로 나가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중요한 부분입니다(사 6:3, 요 15:8, 고전 10:31)

갈등의 구조 속에서 교회 내분에 휩싸인 교회가 대충 300여 교회가 된다고 하니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게 될 것이며, 교회관의 문제성 내지는 교회 안에서의 건덕상의 문제며, 물질의 문제이며, 이성간의 문제이며, 명예와 영적 교만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며, 전도와 선교에 치명적인 것입니다(잠 16:18).

이단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되어서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풀어야 할 것은 풀어주어야 하며, 이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일에는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또 강단과 신학교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생의 배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1년에 1만5천명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통일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

한국교회이 미래와 책임은 막중하며 문제해결을 이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나 성서적 관점에서 의지와 결단이 필요로 하며, 한국교회를 통한 대사회적인 대변도 시급한 일이며 연합을 위하여 양보와 타협과 토론의 장이 상시적으로 종종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잠 15:1)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로 풀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려는 인내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행 2:42).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관용이 우선시 될 때에 해결의 기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약 1:19)

신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단 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신학생에 대한 고민을 늦었지만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타개책은 원만하게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도 교단 이해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며,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며, 공격하는 과격한 것은 삼가야 하며, 교회와 교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신학교와 목회자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조화와 지, 정, 의의 인격적인 수양을 위한 자기개발, 자기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수면에 오르고 있습니다.

3.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의 회복은 믿음의 본질이며 성서로의 복귀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화를 위하여 바른 말씀의 선포와 목회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연장의 교육을 실시하여 목양에 대한 소명을 다시금 갱신해야 합니다. 또 거룩한 독서로 인하여 깊은 말씀의 묵상이나 양서에 대한 다독과 정독이 일상화되어 실제적으로 목회가 되며 양질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면 교회의 내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가면 되며, 실천이 중요합니다(요일 3:18).

신학교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기에 교단 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단 간의 만남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을 세워서 인재와 자원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면 됩니다(마 28:19). 교수가 과중한 과목으로 인해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며,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어서 신학교다움을 실천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딤후 3:16-17). 교단 간이 대타협을 위하여 대표성을 가지며 수시로 만나고 상시적으로 교회문제나 신학교 문제, 목회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이나 평신도의 지도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마 4:4).

통일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분명한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는 방관 내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사 60:22). 남남의 갈등과 이념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교회가 주도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3통과 전적인 희생과 투자를 통해 북한이 마음을 얻는 일이며, 정부는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김병구 칼럼]

복음주의 신앙과 사회구원



김병구 장로
바른구원관선교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일에 빠지는 일입니다. 오늘 날 한국교회의 타락상은 수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는 중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 및 경제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 나라가 정치 및 경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주의로 편향된 복음주의 신학이 첫 번째 오류를, 자유주의 신학이 두 번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과 정치는 같은 것이 아니며, 그들을 혼동할 때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간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더욱 나쁜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프로그램을 설교하면서 마치 복음을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는 사회적 봉사와 행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통 복음주의 신학에 따르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여하한 고통의 어떤 국면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의 결단뿐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이웃사랑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입법화할 수는 없지만, 사회정의는 입법화할 수 있으며, 신자들이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교회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잠언 31: 8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루터 킹은 시민법이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들을 형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으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들의 당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원의 추구가 복음 전도에 우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면한 식량부족, 사회적 불의 등을 해결해 줄 때 그러한 사회적 봉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복음의 전파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골4: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구원의 추구는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적인 전도 및 선교 활동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사회봉사는 복음의 열매이며, 증거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때 개신교의 교인 수는 감소한 반면 카톨릭교도의 수는 증가했던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일부인 율법의 사회적 명령을 회복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죄에 대하여 설교할 때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범죄도 제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박한 심판도 함께 설교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함을 통하여 정부 관리들에게 사회구원을 추구하는 공의의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구원의 사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구원과 전도 및 선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정한 사회정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복음주의 신학이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깃발을 들고 미국 독립의 씨앗을 뿌릴 때, 당시 자유주의 신학은 문화적 정치적 현상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복음의 폭과 깊이와 그 능력을 선포하고 전도하는데 우선적으로 수고하고 진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악한 사회구조 및 사회제도를 무너뜨리는 창조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스트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방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한 역사는 복음이 사회정의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훼퍼는 그의 제자도의 희생(Cost of Discipleship)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보다 무자비한 일은 없다. 사람들에게 공의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행위이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열정과 초대교회의 절박성을 가지고 작금의 한국교회가 '돈 사랑'을 불태우는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들고 부패한 세상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기범 칼럼]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는 연습



이기범 목사
스포켄한인장로교회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 사이가 붕괴된 비극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비누를 꺼내 놓는 것을 깜빡 잊자 남편은 단순한 실수를 과장해서 떠벌렸습니다. "비누 없이 목욕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 아내는 이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정말 깜빡 잊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아내는 자존심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이후 7개월 간 부부는 잠도 다른 방에서 자고, 밥도 말 없이 먹었습니다."그만! 계속 이럴 순 없소. 미안하오. 용서해 주오." 어느 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케즈의 작품,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은 회고록, 『거짓말쟁이 모임(The Liar's Club)』에서 메리카르(Mary Karr)는 삼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설탕을 사는 데 쓴 돈의 액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뒤, 이혼은 안 했지만 40년 간 아내와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은 어느 날통나무 자르는 톱으로 집을 정확히 이등분합니다. 그리고 잘린 면에 널빤지를 대고 못을박은 뒤 그 중 하나를 너저분한 소나무 숲 뒤편의 같은 면적의 대지로 옮겼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남은 평생을 반쪽으로 갈린 집에서 산 것입니다.

필립 얀시(Philip Yancey)는 이 두 커플들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관계가 막혔을 때 출구가 있을까? 출구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는 용서하는 것만이 출구라고 말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책임 소재와 공평성의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새 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솔제니친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고력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한다. 냉혹한 본성의 법을 초월하는가장 비본성적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동물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도, 용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용서했잖니? 용서받은 네가 이번에는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물으십니다. 받을 자격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없이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칠곤 칼럼]

부러워 하면 진다



김칠곤 목사
크로스로드 한인교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think, therefore I am)"라는 말은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한 말이다. 이말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을 현상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살아 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며, 숨을 쉰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물체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동물과 구별되어 이성(理性)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나를 누군가의 삶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식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부러워하는 마음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삶에서 주어지는 현상은 열등의식과 교만이다. 이 두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시대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다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까지 반복해서 주어지는 갈등의 요인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인간은 남을 부러워하는데 어리석게도 인생의 4분의 3을 허비한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의 거의 대부분 삶이 누군가로부터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남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수고와 고통을 통해 성공이라는 가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의 삶에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큰 동기 부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삶이 게으르고 안이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부러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깊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전에 미국에 들어온지 14년 만에 한국을 3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 생활한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어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대가 되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얼마나 바뀌었으며 과연 한국의 땅을 다시 밟을 때, 나의 모습이 이방인 처럼 느껴지지나 아니할까?에 대한 걱정이었다. 한국의 땅을 밟은 처음 순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감격의 축복이 있었지만 딸 아이의 인도함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부터 뭔가에 비교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신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였다.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자에 비해 외소해 보였다. 나는 한결같이 몸들이 어쩌면 저렇게 날씬할 수 있을 까?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 나에게 스트레스로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의 체격은 미국에서는 준수한 모습인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볼때 너무나 뚱뚱(chubby)하게 보인 것이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더욱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딸 아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아빠! 살좀 빼야 해", "미국에 돌아가면 제발 운동좀 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짧은 기간의 한국 방문속에서 나를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과 누군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부터 나의 삶의 문제성을 충고로 받는다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 이었다. 외형적인 신체의 모습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한 목사로써 느낀 부러움은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가지고 교회생활에 너무나 열심인 것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동기들이 한국에서 중형교회 이상의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는 것을 볼때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였고, 한 없이 그들이 부럽게 보였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았다. "나는 언제 저들과 같이 될 것인가?", "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 나도 한국에서 목회 한번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갈때도, 설교를 위해 교회를 방문할 때에도 나에게는 끊임없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는 며칠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러워 하면 진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 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을 행복으로 여겨라", " 내가 너에게만 준 사역이 있다", "너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 부터 듣는 순간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 나는 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후로 마음에 평안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습과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육안(肉眼)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부러워 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사고(思考)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갈대와 같이 바람 한 번 불면 언제나 쓰러질 것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 인간이 세상과 자신에게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환경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어지기에 주변의 환경도 바꾸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적인 삶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몸이 과체중이라고 느낀다면 먹는 습관을 바꾸고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다소 힘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기에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나의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심관식 칼럼]

웃는 사람



심관식 원로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많이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요, 웃지 못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난해서 또 억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성장해 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을 모신 아버지의 자녀처럼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비웃고, 멸시하는 웃음입니다. 거짓된 웃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속에는 살인적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웃음입니다. 독재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속에 무서운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는 스탈린, 히틀러가 웃는 웃음입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웃음이지요. 인간이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웃기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로 웃는 웃음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얘기했는데 〈희락〉을 두 번째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성령의 열매요, 천국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웃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7: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기쁨의 은혜로 웃음을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엎드려서 웃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울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웃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 때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의 모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눈물도 있고,분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역성경을 보면 시 2:4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시 37:13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시 59:8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에는 깊은 비밀이 있는데 장차 아들을 보낼 약속을 하시면서 웃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셨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웃음을 찾아야 합니다. 울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고 웃기 위해서 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그랬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웃기시고 아내도 하나님이 웃기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때문에 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거 웃기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다 웃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예수를 믿나?'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까?'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빼앗겨버린 인간의 모든 불행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웃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인간 내면 세계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즐거움은 외면 세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웃고 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며 이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귀에게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면 마귀는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옛날 가난한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한 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를 의논하다가 옷 저고리를 돌려 입고 부부가 어머니 앞에서 어설픈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랍니다. 아마 "너희들 웃기는 구나!" 그런 뜻이겠지요. 부모의 가슴에서 눈물을 뺀다든지,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최근에 발행된 프랑스 보건지 "쌍떼"라는 잡지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들이 뽑는 가장 좋은 약은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따라서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오려는 모든 암의 병균들을 물리쳐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벌 수도 없고, 꿀 수도 없고, 훔쳐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행복을 위한 비밀의 보화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최후로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웃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인데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 하늘나라 소망 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주봉 목사 설교

다아트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말2:7)

구약 시대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날 설교자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아트'입니다.

1. 다아트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선 '다아트'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7도 '다아트'를 율법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아트'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가 호세아 4:1과 4:6에 나오는데, 그 구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이 그 의미를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1, 6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다아트'가 없어 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호 4:1).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다아트'를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호세아 시대의 그들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정통적이었습니다(마 23:2-3).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아트'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아트'가 없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들이 이사야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고(마 13:13-14, 15:7-9),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13, 12:7).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아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페트라 주석은 호세아 4:1, 6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아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1절에 대한 주석)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아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1절)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신 31:9-13; 33:10; 말 2:7).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신 30:15,16)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6절에 대한 주석)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20을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은 로마서 6장이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엡 3:16-17).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지식 혹은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그것들이 '다아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20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 삶을 살려면 방금 살펴본 성경적인 지식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아트'는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삶을 살려고 하면 방금 살펴본 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교회 홈페이지

다아트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을 포함하지는 않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다아트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이를 인도할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아트'가 없으면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나고,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통일지 몰라도, 그 삶은 혹은 그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아트'를 가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20의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교리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은 그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에게는 '다아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지식, 즉 '다아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으로부터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 등 성경에 나오는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소망과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여기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는 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에 18개월 가량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바울 앞에는 전 세계가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의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주님을 아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되, 그렇게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와 능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0-12). 당연히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더 알기 원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와 능력의 실제를 삶에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고린도전서 2:2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고전 1:23).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고전 2:1).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2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아트'가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아트',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 편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어느 때보다 범람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지식은 정통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편으로 우리는 참으로 "지식", 즉 '다아트'가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말씀"만 외쳐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말 2:7).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체험적 지식인 '다아트'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명혁 목사 설교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



김명혁 목사

제가 얼마 전에 밤에 들어누워 자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미쳐서 살다가 미쳐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인 저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즉 나의 지식과 나의 업적과 나의 명예 등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모두 내어버리고 그리고 가난과 고난을 몸에 지니시고 오직 나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고, 나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서 죽게 내어버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제가 가슴에 지니게 된 "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도 모르는 가운데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업적과 나 자신의 명예에 치우쳐서 스스로 속아넘어가면서 위선과 독선을 지니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절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평생 목회의 일도 잘 했는데, 내가 한 평생 교수의 일도 잘 했는데, 내가 한 평생 선교의 일도 잘 했는데, 내가 한 평생 섬김의 일도 잘 했는데, 내가 한 평생 구제의 일도 잘 했는데, 나는 지금도 은퇴 후 작은 교회들을 주일마다 방문하면서 순회 목회의 일도 잘 하고 있는데, 나만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저는 이와 같은 위선과 독선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절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저는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몽둥이로 쳐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님들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과 폴리캅 감독과 성 프랜시스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신앙의 선배님들을 닮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위선자를 몽둥이로 쳐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 사랑에 미치시고, 나환자 사랑에 미치시고, 원수 사랑에 미치시고, 순교 사랑에 미치시고, 천국 사모에 미쳐서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나환자 사랑에 미치고, 원수 사랑에 미쳐서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서 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사시다가 죽으신, '미친' 삶과 '미친' 죽음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고백한 간단한 고백을 추가해서 인용하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에게 베푸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리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아주 가볍게 하늘 집으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석기현 목사 설교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존 레논의 'Imagine'(상상해 보세요)이라는 노래는 무척이나 감미로운 멜로디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무신론,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기현 목사

그 노래의 첫째 연은 "Imagine there's no heaven (천당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 It's easy if you try (해 보면 쉬워요) /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우리 밑에 지옥도 없고 오직 우리 위에 하늘만 있어요) /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모든 사람이 그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라고 시작됩니다.

비록 이 노래가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다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존 레논 같은 무신론자들이 진짜로 싫어하는 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소위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 보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 "지옥은 마귀를 위한 곳이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따위의 설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 역시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 '축복과 구원' 등은 듣기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제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 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때 함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불만은 본문 29절에 나오듯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징계하신 것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여겼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억울한 벌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왜 지극히 '공의로운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벌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에 "1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3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조상까지 끌어들여서라도 남에게 전가시키고, 반면에 모든 공은 자기에게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 있던 유다 백성 역시 그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그 속담의 의미가 잘못된 것임을 책망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디까지나 신 포도를 먹은 당사자인 아버지의 이만시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곧 죄는 자기네 조상이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벌은 자기네가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그따위)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원칙 즉 '오직 죄를 지은 당사자만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시는' 원칙을 구구절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각 개인의 의와 불의를 따라서 판단할 뿐이며, 따라서 아버지의 의 때문에 자식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도 없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게 되는 일도 절대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2계명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 그 자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반면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자손도 '삼사 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복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 각 개인의 구원 여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은 자기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그 벌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역시 그네들의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등, 오직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자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 된 땅에서의 괴로운 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은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돌이켜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신 포도를 먹은 것은 우리 조상들인데 왜 죄 없는 우리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당하던 불행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해도,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식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록 조상이 죄를 지어 받은 징벌이 후손 세대에까지 계속된다 해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후손들의 각 세대와 각 개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일 뿐입니다.

가정에 시험이 생길 때, 조국과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기록하기를 "19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부모이고, 자기 부모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생을 보내도록 효도하고 싶은 사람이 자식이지만, 그런 부모자식 간에도 절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 공의로운 것
때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물어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주셔

본문 앞의 5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악한 아들', 또 '악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의로운 아들'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매 문단 끝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또는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자기만 의인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그 자식이 악인이면 죽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죄 값은 당연히 아들에게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부자관계란 것이 얼마나 가까운데 어떻게 아버지의 의로운 공로가 자식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면에 아버지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면 자식도 그 해를 입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엉터리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든지 자기의 악으로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역시 아들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의인의 의로움도 오직 본인에게만 구원을 가져다주고 악인의 악함도 오직 본인에게만 사망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문에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결코 '이행득구'를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신행일치' 즉 '참된 신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극악무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진심의 신앙고백만 있으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천당 구원을 얻는 것, 이것만큼은 정말 자기 것을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직은 '구원 받을 기회'를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욱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중에도 무한한 인애를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 이하 32절에 "29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30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오로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구원의 기회'는 마다하면서 그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는 원망과 항의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걸림돌"에 스스로 걸려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모르는 무지와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교만이라는 자승자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악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간곡히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거나 무섭게만 대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얼마나 인애하고 자비로운지를 전혀 모른 불신앙의 극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스스로 패망과 저주의 길을 자초하는 가운데 오히려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사랑을 발휘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을 자"란 곧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사회에서는 악인이 벌을 받게 되면 다들 통쾌하고 후련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유괴범이나 살인범이 잡혀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같이 다 잘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이신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의 어느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 판사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교롭게도 그 판사의 동창생이었습니다.

비록 친구였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오직 법에 따라 결국 유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내린 후에 그 판사는 그 피고 동창생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중한 공의'를 시행하면서도 '인간적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비록 '끝내 죄악을 버리지 않는' 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여지없이 영벌의 선고를 내리시는 엄한 재판장이시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죄로 죽어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즉 그 모습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하나님의 인자'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릴 때에도 결코 '공포의 재판장'이 아니라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불공평하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벌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 모두가 다 본인이 끝내 죄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일 뿐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조차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엄중한 '백보좌 심판대'의 날을 아직 연기시켜 주고 있을 동안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또한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혈육과 이웃을 더욱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석기현 목사(경향교회 담임)

홍천 블루베리 농장 긴 급 매 매

◎매물종류: 블루베리 농장
◎매물구분: 매매
◎매물크기: 부지 560평 (대지임대)
-실제 사용면적 800평/하천부지 250평
◎매물위치: 홍천군 화촌면 (고속도로 인접)

[매물장점]
- 블루베리 과실수 500주
- 땅굴형 냉동고(창고)
- 블루베리 보관용 냉동시설창고
- 건조기동 작업 장비일체
- 홍천군 화촌면 (고속도로 인접)

연락처 ☎ 010-5779-2368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저렴한가격으로
정성껏 시공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지방교회 상담환영

(주)원영 www.wyinc.co.kr
010-3627-1904, 02-472-1904

매매/서울H대학교 H교수의 작품으로, 미국 워싱턴주 건축사협회지에 게재된 작품



▶매물크기: ①대지: 180평 ②건축물: 74평
▶급매금액: 9억
▶위치: 경기도 광주 오포읍 (태재고개에서 약8Km)
▶해당층수: ①1층/1,2층 ②1층/1층
▶난방방식: 심야보일러
▶옵션사항: 태양광 3kw/지하 150m 암반수
▶주차가능여부: 최대 6~7대 (승용차 기준)
▶http://cplace.co.kr 참조)
▶문의처: 010-2282-1119(건물주)

주거를 겸한 작은 전원교회/기도원/상담센터&연구원

조용한 묵상과 예배가 가능한 곳

- 예배실, 사택 1채, 게스트룸 1채, 별채 2채, 중간채 방 2개 공동체 생활 가능 (4~5가정), 창고 3채.
- 전원생활과 수양관 또는 공동체하기 좋은 조건이고 주변경관이 아름답습니다.
- 리모델링을 완료해 작은 연못 있고 수종 가옥 체험 기도처 있습니다.
-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며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며 건물은 태양열 기구 있습니다.
- 인터체인지 인근이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 강진읍 6분, 옥포 30분, 순천 40분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대곡길2 (구주소: 성산리 794번지)

문의 010-3619-7938 / 010-2777-6013

★평택 안중역 3분거리 1억산 급매원룸 ★

◎ 대지 299m2 /건평 512m
◎ 매매가격 : 13억 3천만
◎ 융자 : 7억
◎ 인수가격 : 2억3천 500만
◎ 월수입 : 460만
◎ 수익률 : 11.8%
◎ 임대완료이며 대단지아파트 인근 4층 E/V(有)

☎031-683-8959

법 원 경 매

교회부지(땅,밭,논,임야)
건물,빌딩,요양원,유치원,어린이집
공장,창고,아파트,단독주택
천원주택,과수원,목장부지 등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 및 대출 진행해드립니다
*1~2층용접 (주)세계, 2~3t 지붕설치 정우 대부건

DSD 전국법원경매(주)

상담문의 노사무장 010-2236-9182

교회긴급매매 제주

▶건물: 1,254m2(380) 4층(신축)
▶현재 교회 정상 목회 (예배) 중
▶인수 즉시 목회 가능
▶매입대금 장기분할 가능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내소재

협의 010-5779-2368

★교회매매★

[매물정보]
- 매물 종류: 교회
- 매물 구분: 매매
- 매물 크기: 대지면적 1,236.5m²(374평), 면반적 776.42m²(234.9평)
- 거래금액: 4,650,000,000원(사십육억오천만원)
- 매물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7-5
- 해당층수: 지상2층 / 지하1층 (건물전체 및 토지전체)
- 난방방식: 개별난방
- 주차가능 여부: 주차장 있음
- 입주가능 일시: 잔금 시 가능

[매물장점]
- 서울외곽순환도로 차량 5분이내 이용가능
-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내 위치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연락처☎ 010-6237-4486

★상가교회 매매★

◎매물종류: 교회 ◎매물구분: 매매 또는 임대
◎매물크기: 실평수(23평)
◎거래금액: 매매가 - 1억 7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포함)
임대 - 보증금 2000 / 월세 40
◎매물위치:전남 목포시 옥암동

[매물장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많아 선도에 한옥쓰면 좋을 듯 합니다.
◎10년된 깨끗한 아파트로 아파트 상가자체로 투자 가치가 좋습니다.
◎개인 골목인 가시고 전무 누고 갑니다.
◎1년정도 사용한 전자제품 (한주기 (설치), 마이크 시설, 냉온풍기(25평형), 순간온수기,냉장고, 선풍기 등등) 비용대는 500만원입니다.
◎시설이 완벽 준비되어 있어, 즉 이후에 사역이 가능 하십니다.

연락처 ☎ 010-3628-2874

★월세가 저렴한 교회임대★

◎매물종류: 교회 및 기도원,영성원 가능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약 29평정도
◎거래금액: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부가세 별도)
◎매물위치: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67 (부산 사하구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입)

[매물장점]
◎전기시설, 음향시설 및 강대상, 피아노, 장의자, 영상화면, 에어컨, 공기청정, 전자렌지, 냉장고 등.
◎부엌시설 있음/어린이 영상예배 시설 되어있음.
◎토요일,주일은 교회앞 길가에 주차가능, 평일은 주택가 안쪽으로 주차 할 곳 많음.
◎내일 이라도 몸만 오셔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모든 시역 가능함.
◎성물 다 준비 되어 있음.
◎직은 부엌 따뜻한 물 잘 나옴
◎시설비 조금 있음 (협의절충 가능)

연락처 ☎ 010-7758-3423

★단독교회 건물교환★

◎매물종류: 교회
◎매물구분: 매매 및 교환
◎매물크기: 대지 80평 / 건평 170평
◎거래금액: 10억 융자 3억 8천 (잔존가 6억 2천)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대학교 인접

【매물장점】
1. 대학가 인근이라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2.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그 외 월세 나오는 건물과 교환 가능 합니다.

☎031-445-8291
☎010-8234-9729

청평수양관(기도원) 저 가 임 대

-건물(2층) 300평
(1층 예배당/ 2층 숙소 ,주방 ,식당)
-대지/신림 13,000평 (힐링코스)
-접근성 양호(서울에서 1시간 이내)
-즉시입주 / 장기임대 가능
-내부시설 구조개조 허용
(1층 예배당 200명 이상 수용가능)
-진입도로- 청평 대보에서 진입
5분거리(주차장 확보)
-임대조건 및 가격협의 요망
(계약 가능자 우대)
-현장답사 및 임대협의

임대문의 010-5779-2368

하나님의 달력 (유대력) 무료보급

- 탁상형 달력(230x165)
-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표기
- 하나님의 달력(유대력)과 하나님의 절기 표기
-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보급
- 1세기 초대교회 관련도서 5종도 함께 발송
- 주문방법: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비용은 택배비 3,000원만 착불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010-4009-1611

종각 파이프탑



구조물탑·네온설치수리
종각이전공사·파이프탑

김 종 욱 집사

동방기독공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번지교차로 IC 입구
홈페이지: dongbang04.co.kr T. 02-439-0050
T. 031-296-3090 (수원지점) M. 010-5266-4051

DSD전국법원경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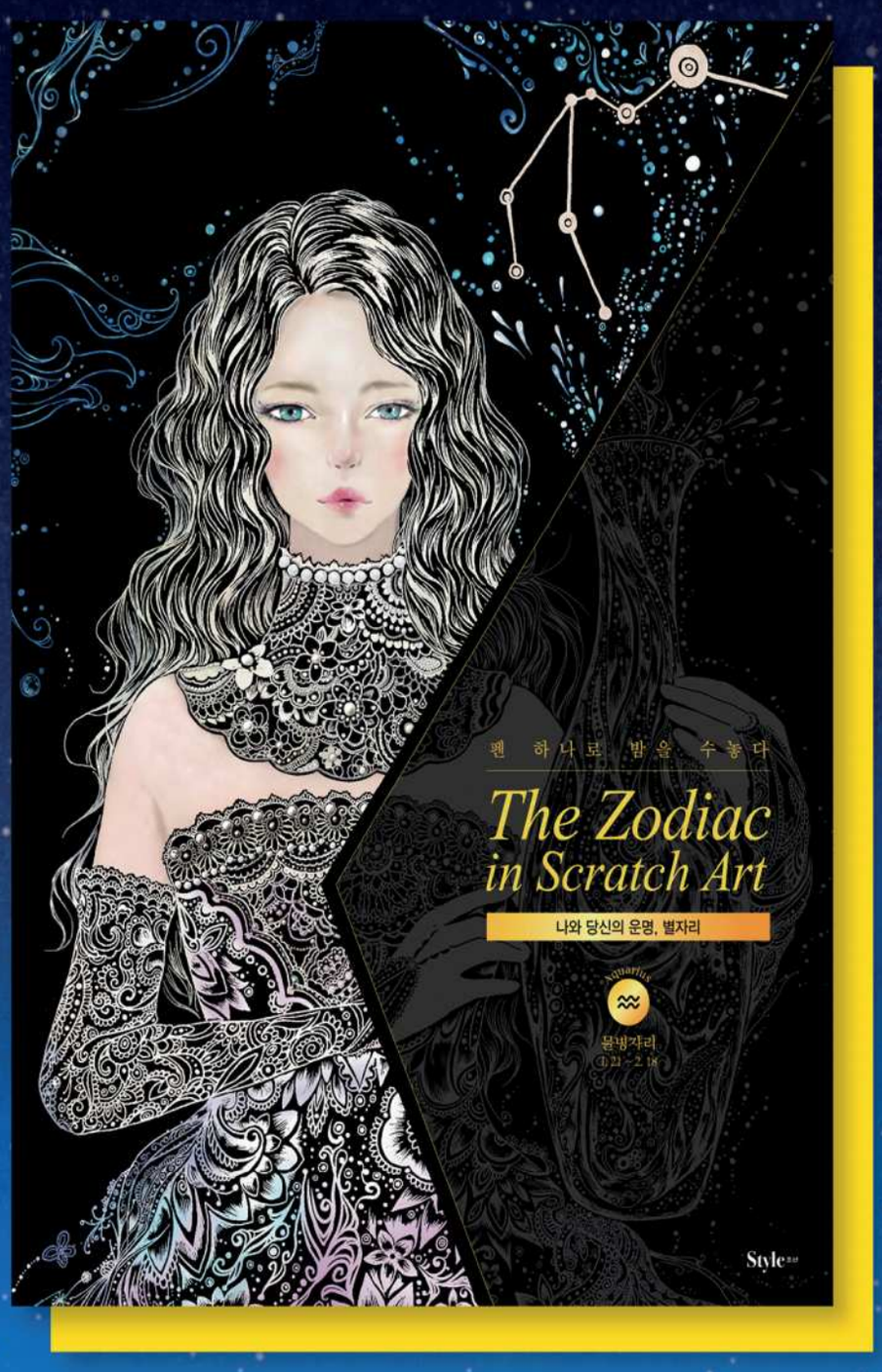
하복순 이사 010-9854-0008 김민주 부장 010-5008-9397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Happy New Year

새해에 행운의 별자리를 선물해 보세요



물병자리 1. 21 ~ 2. 18

NEW

The Zodiac in Scratch Art

스크래치 아트 별자리 시리즈

기존 스크래치 북보다
2배 큰 사이즈로 제작된
빅사이즈 특별판 스크래치 아트
시리즈를 만나 보세요.

사이즈 28cm X 39.6cm

태어난 날의 별자리가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스크래치해 보세요!



사수자리 11. 23 ~ 12. 21 염소자리 12. 22 ~ 1. 20 물고기자리 2. 19 ~ 3. 20



구성 도안 1장(블랙 보드) + 원화 1장

* 온라인 서점(예스24)에서 '스크래치 아트 시리즈'를 구매하는 모든 분께 스크래치 전용 펜을 드립니다.〈소진 시까지〉
* 나머지 별자리도 곧 출시됩니다.

구입 문의 02-724-7851 Style조선

개미,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는 비교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개미보다 사람이 더 크다', '갓난 아기보다 어른이 더 크다' 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식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으로 이동해 가야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더불어 우리 영혼의 외침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추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세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사무엘상15장)'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사무엘상9장)'

하나님 앞에선 사울, 그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얻게 된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 전입니다. 또한 크게 한번 심판을 받고 나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하신 뜻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변질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사무엘상15)'

어찌하여! 이러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시대에 선지자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너희 지식을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크다하였느냐!'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더 크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름다웠던 이야기 그리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자리'로 돌아가 크신 주의 축복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일깨워주는 성경구절 8가지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1)

2.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예레미야 50:36)

3.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11)

4.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6)

5.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사도행전 13:6)

6.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1)

7.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7:15)

8.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22)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Live as children of light)'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우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주는 교훈은 밤의 문화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밤의 문화는 죄와 유혹의 빌미가 되고 우리의 인격과 사역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집의 많은 그릇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끗한지 아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더럽힙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 두 죄인의 유형을 부정한 것의 대표로 꼽았습니다. 사람은 크게 돈과 성으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인 물질과 사랑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 일찍 자는 훈련은 우리의 신앙적인 생명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습니까?

렘 2:2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결코 씻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합니다. 그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내주하면 우리 죄는 불탑니다.

전 10:8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는 사탄에게 물립니다. 담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담을 헐지만 않으면 뱀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담이 헐려 뱀에게 물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밤의 문화를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죄는 쌓이고 쌓이고 결국 심판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사실 우리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도 씻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법도 중요합니다. 법은 우리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선과 악을 명확히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죄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가 내려서 모든 죄가 청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과 희생, 보혈의 의미를 알 때 우리 죄가 씻깁니다. 물은, 곧 법은 외모, 겉모습을 씻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론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되새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써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심리학계 최고의 지성 서울대 권석만 교수가 전하는 죽음에 관한 모든 것!

태양과 죽음은 똑바로 바라보기 어렵다. 그러나 삶은 죽음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잘 보인다.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인간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죽음 후에도 삶이 존재하는가?
- 인간은 어떻게 죽어가는가?
- 사별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권석만 지음 | 944면 | 33,000원

(주) 학지사 www.hakjisa.co.kr

주기도문의 핵심은 '밥'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간 『밥심으로 사는 나라』



박영돈 목사 ⓒ박영돈 목사 페이스북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22년간 구원론, 성령론을 가르친 바 있는 박영돈 목사(서울 작은목자들교회)가, 주기도문을 회중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 쓴 강해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를 출간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며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마태복음 6장 9절~13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외는 기도 중의 기도다.

박영돈 목사는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회중들 가운데 아직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많아, 주기도 강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달에 걸쳐 매주 설교를 위해 주기도를 연구하면서 그는 "이 기도의 보배로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책 제목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다. 왜 '밥심', 밥을 전면에 부각시켰을까. 그것은 주기도문이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밥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현실과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밥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밥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 나라의 추구를 끈질기게 방해하기에,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구할 때만 주기도의 다른 간구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매일 밥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과 함께 주기도문의 또 다른 축은 '하나님 나라'다.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간구하며 마친다.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에 대해 박영돈 목사는 "주기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부르짖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강조한다.

박영돈 목사가 보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신앙에 있어서 튼튼하지 못하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간구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 자신의 필요와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도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고 지적한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까지 수많은 기도모임이 있지만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주 분쟁하는 이유는,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러한 기도는 차라리 "순진한 부류"에 속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평판과 영광을 얻으려는 은밀한 욕망에서 기도를 도구화하는 "영적 탈선"이 심각하다. 그는 이러한 '나 기도'를 버리고 진정한 '주기도'를 드리라고 촉구한다.

책은 총 9장으로 나누어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차례대로 강해해나간다. 저자는 주기도문에 대한 신학적 설명과 목회적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과 방식 등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도 권면한다. 이민선 기자



도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

1월, 작가들의 말말말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의 행복과 자유는 교회에 있는 각양각색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행운에 있습니다.

문봉, 『믿음의 비약』

제자가 되어 성장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지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에 약속하신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박영철, 『제자훈련총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길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큰 비가 내려 다리가 끊기면, 우리 힘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김서택, 『시편 강해 3』

성경은 질문의 보고(寶庫)다. 보석과 같은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보석과 다름이 없다. 삶도 질문이 중심에 있다. 세상을 의미 있게 살려면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한다. 끝없는 질문을 통해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삶의 답을 찾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며 읽어야 한다. 세상을 살 때도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이 질문의 책이라면 교회의 리더는 성경을 공부할 때, 청중에게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김도인, 『설교자와 묵상』

사랑하는 딸을 앞에 두고 시인은 어떤 말을 할까

나태주 신간 『너의 햇볕에 마음을 말린다 - 딸에게 보내는 시』

딸을 앞에 두고 시인은 어떤 말을 할까.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적는다. '눈을 떴을 때 / 거기 네가 있었다 / 그냥 별이었다 / 꽃이었다 / 반짝임 자체였다 / 그만 나는 무너지고 말았다.' (시 〈발견〉 중)

나태주 시인이 딸에게 보내는 시 106편을 모은 『너의 햇볕에 마음을 말린다 - 딸에게 보내는 시』가 출간됐다.

소박하고 작은 언어를 사용해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한 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작은 메모 같은 시들로 딸을 향한 커다란 사랑을 전한다.

시인은 딸에게 물든다. '물든다 / 물들고 만다 / 물들지 않을 수 없다 / 여름 들판 초록에 물들고 / 너한테 물든다.'(〈발견〉 중)

딸을 생각하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신기루가 일어난다. '너의 생각 가슴에 안으면 / 겨울도 봄이다 / 웃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 / 겨울도 꽃이 핀다.'(〈겨울 차창〉 중)

그에게 있어서 딸은 매우 특별한 존재다. 많은 작품에서 딸이 등장했고, 베스트셀러 시집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에서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를 골라 엮기도 했다.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딸을 주인공으로 한 '민애는 1학년'이라는 동화도 있다.

알려진대로 그의 딸은 문학평론가 나민애. 시인은 딸이 책을 냈을 때 쓴 축하글에서 "나민애는 나의 딸입니다. 딸이 책을 내는데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쑥스러운 일이고 팔불출 같은 일이지만 기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며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축하글은 온라인에서만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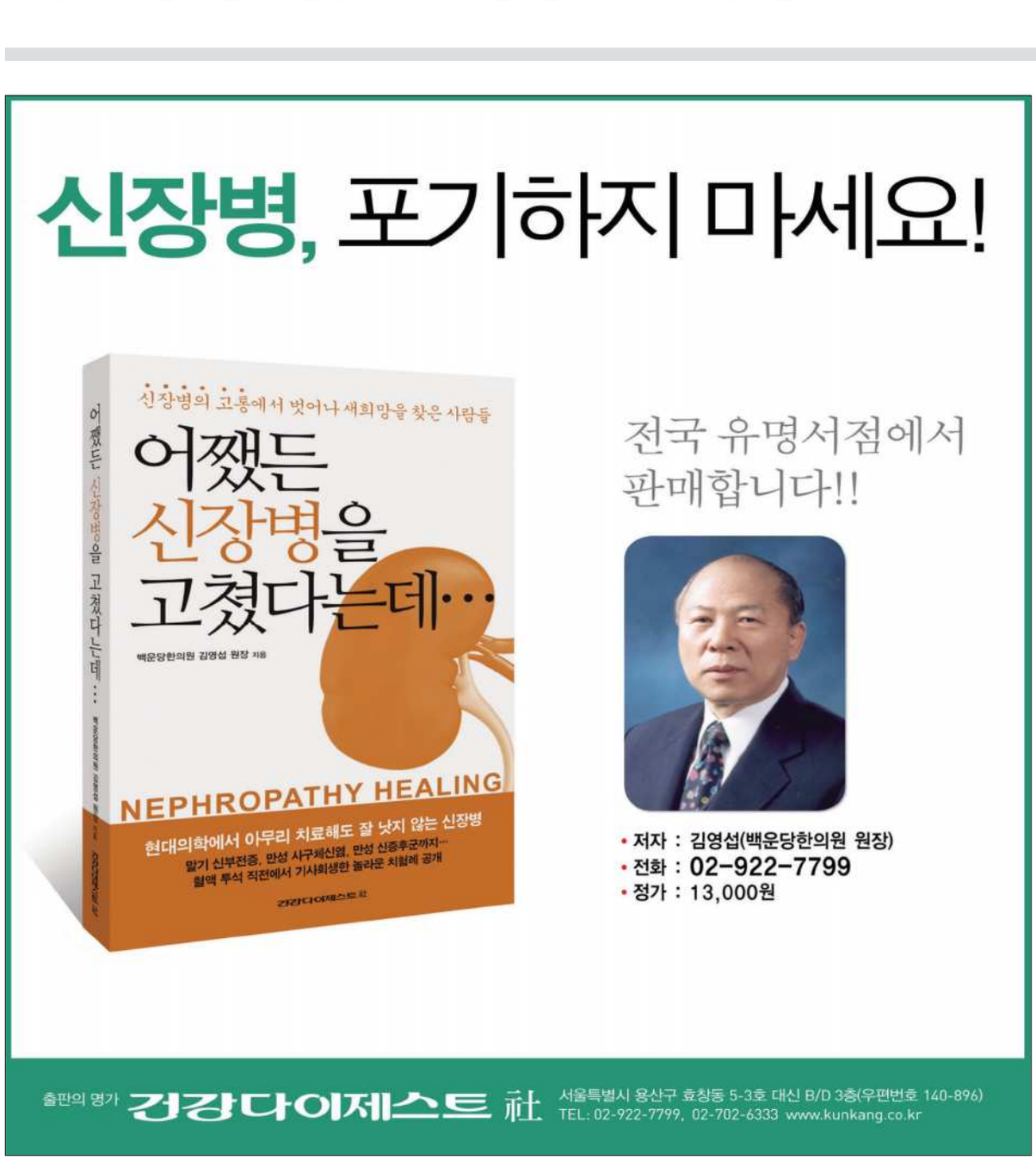
나 시인은 개신교 신자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시편 23편을 꼽는다. 아마도 시인은, 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2013년 한 공중파 드라마에서 그의 시 '풀꽃'이 인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 몸담았으며, 2007년 정년 퇴임한 뒤 8년 동안 공주문화원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공주풀꽃문학관을 운영하며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민선 기자



나태주 시인(사진 오른쪽)





기독 Q&A

전도가 어려워요

Q 올해 출석하는 교회에 전도푯대를 세웠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렵게만 생각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전도가 어렵다고하는 것은 악마의 속삭임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법, 그렇게 생각하도록 악마는 늘 방해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도함으로써 상대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명령은 행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개인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경위를 3분 정도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10분 정도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외워둬야 합니다.
이것은 옛부터 그리스도인이 말해온 복음의 네 가지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꼽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요약하여 설명한 팜플렛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전도 문서를 늘 준비해 둡니다.

4. 개인적인 접촉을 할 때에는 때와 장소를 잘 생각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을 미리 약속해 놓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일로 중단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5. 복음의 요점을 탈선하지 않고 성경을 바탕으로 잘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질문을 받게 되면 곁길로 나가기 쉬우므로 질문의 대답은 나중에 할 것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야기한 내용을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그 친구를 반드시 목사님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할 때 더 좋은 길을 열 수 있거든요. 전도는 힘들지 않으며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 뿐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역사

1937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 영국에서 소천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한국명: 기일[奇一])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출생하여 1888년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 후, 토론토 대학교 YMCA의 지원으로 조선 선교사가 되었다. 이는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와 아서 태펀 피어선 박사의 주도 만들어진 학생자원운동(SVM)의 영향이었다. 1889년 황해도 해주 지방과 경상도 지방에서 전도하며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했고, 1890년 예수교 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1891년 8월 31일 선교 지원 중단으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로 선교 단체를 옮겼다. 1892년 성서 번역에 참여, 마태복음서, 에베소서등 신약성서 중 일부를 번역했다. 1897년, 한국 최초의 〈한영 사전〉을 간행하였으며 〈신·구약 성서〉와 〈천로 역정〉을 한국어로 발간하였다. 한국인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원긍·유성준·김정식과 한국 교육 기관의 효시인 '교육 협회'를 창립하였다. 또 〈춘향전〉 〈구운몽〉 등을 영역하여 한국의 언어·풍습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왕립 아시아 학회 한국부회 간사를 역임하였



으며, 1928년 은퇴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1937년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연동교회의 1대 담임목사였다. 연동교회는 조선 말기인 1894년에 설립된 오래된 교회이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사무엘 무어(S. F. Moore, 한국명 모삼율[毛三栗])이 1894년 전도하여 몇 명의 신자를 얻었고, 그래함 리(Graham Lee, 한국명 이길함[李吉咸]) 선교사와 서상륜이 연지동 136-17번지의 초가를 예배당으로 삼아 예배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연동교회의 초기 신자들은 천민에 속한 갖바치들 즉, 신을 삼는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점차 신도가 증가하면서 이듬해에는 교육 기관인 연동소학교를 세워 여학생도 모집해 운영했다. 이 학교는 정신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바로 이 교회에 1900년에는 제임스 게일이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왔고,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조선인과 조선인의 문화를 사랑했다. 1928년 '조선사상통신'에 쓴 그의 글에는 조선에 대해서 "동양의 희랍(그리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의 문화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화"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최치원의 글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광개토대왕비문에 대해서는 웅장한 비석이며 거대한 문장(雄圖巨業)이라고 평했다. 그런 제임스 게일은 조선의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금수전, 홍길동전, 옥루몽, 운영전 등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 알렸다.

또한 그의 다른 업적으로는 성서를 한글로 번역한 일인데, 특히 여호와를 중국 표기인 '천주'나 '상제'로 표기하지 않고 우리말 용어인 '하나님'으로 표기하자고 적극 주장해서 관철시켰다.

언어는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아상(Self Image)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란,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자아상이란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명히 누구나 무의식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자신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원망, 불평이요 자신감이 없으며 소극적, 내성적, 비관적, 절망적, 패배적인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 비판적, 공격적이기 쉬우므로 실패적인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다는게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자아상(Self Image)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 할때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어떤 말을 듣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의 아들이 오래 전 I.Q검사를 해보니 130밖에 안나왔다고 시무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30이면 천재야. 천재 ! 노력만 하면 넌 최고가 될 수 있다" 하고 어깨를 두들겨 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흐뭇해했습니다. I.Q 130이면 보통에서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천재라 했겠습니까. 긍정적 자아상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 43: 1)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란 것입니다.

(엡 2: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자니"

우리 인생은 우연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아상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아상,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넌 왜 이 모양이야 ! 넌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어" 이런류의 부정적 언어를 듣고 가짜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짜 자아상에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돼. 우리는 가짜 자아상에 속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창 1: 31)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 언어속에서 우리의 실상을 잃어버리고 못난이 자아상, 가짜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이 가짜 자아상을 깨뜨리고 본래의 자아상, 실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바로 말씀을 통해 언어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언어는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제34기 정기 세미나

주제 : 무신론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의 응전

일시 2020년 2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 ~ 19일(수) 오후 9시

주강사 데이빗 로벗슨(Rev. David Robertson)
(전 던디 프리처치 교회 담임, 현 호주 시티 바이블 포럼 책임자)

개강예배설교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특강강사 서창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최더함 목사 (바로선개혁교회)
김효남 교수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장소 세곡교회당 (박의서 목사 시무)
서울 강남구 헌릉로 569길 39-6(세곡동)
※ 지하철3호선 수서역 6번출구로 나와서 '강남03', '강남06' 탑승 후 '은곡마을'에서 하차 (도보100m)

회비 7만원(강의안, 식사 포함) - 신학생은 5만원
* 우리은행 1005-103-238185 (예금주: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 지방에서 오시는 분에 한하여 숙박 제공(신청시)

등록문의 02)984-2590, www.kirp.org

+주강사



Rev. David Robertson

+개강예배설교



김남준 목사

+특강강사



서창원 교수



최더함 목사



김효남 교수

시간	17일(월)	시간	18일(화)	19일(수)
		9:00~9:30	아침경건회(김준범 목사)	아침경건회(최덕수 목사)
		9:30~11:20	강의2 만족함이 없는 세속 사회에서 기독교의 응전 (David Robertson)	강의5 무의미한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의 응전(2) (David Robertson)
		11:20~11:40	Tea Break	
		11:40~12:40	강의3 세속사회의 아름다움과 영원성을 위한 기독교의 응전 (David Robertson)	강의6 무신론 세속주의와 창조주 하나님(1) (David Robertson)
		12:40~14:15	기념사진 촬영 / 점심 식사	
13:30~14:30	개강예배 설교 : 김남준 목사	14:15~16:00	강의4 무의미한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의 응전(1) (David Robertson)	강의7 무신론 세속주의와 창조주 하나님(2) (David Robertson)
14:30~16:00	강의1 해아래 새것이 없다 (David Robertson)			
16:00~16:30	Tea Break	16:00~16:30	Tea Break	
16:30~18:00	특강1 "공교회성 회복" (서창원 교수)	16:30~18:00	특강2 "자연주의에 대한 워필드의 기독교 초자연주의 변증" (최더함 목사)	특강3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와 신학적 배경" (김효남 교수)
18:00~19:30	저녁 식사	18:00~19:30	저녁 식사	
19:30~21:00	저녁집회1 예수위해 사는 길 (골2:6-7) (David Robertson)	19:30~21:00	저녁집회2 복음의 철학정신 (골 2:8-10) (David Robertson)	저녁집회3 죽어가는 교회,살아있는 교회 (골 2:11-15) (David Robertson)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 진리의깃발 (Korea Institute for Reformed Preaching · The Banner of Truth Korea)
원장 서창원 목사 | 총무 강문진 목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길 34-4 위너스타워 1203호 T.02)984-2590 F.02)945-9986



짝을 찾아 나서다

팔레스타인에선 사슴들이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합니다.

그 시기에 많은 숫사슴들은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죠.



타는 목마름

이때 사슴들의 몸에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이 목마름이 온몸에 엄습하면
사슴들은 오직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중동 지방의 가뭄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들은
심한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게 되고

결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생명의 물

사슴들은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에게 있어
한 모금의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사슴들의 사체

시편 저자는 들판을 다니다가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해

비참하게 죽어 있는
수많은 사슴들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모금의 물

맹수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그토록 건강한 사슴들이
상처 하나 없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속에 나타난 3대 의무

1. 하나님에 대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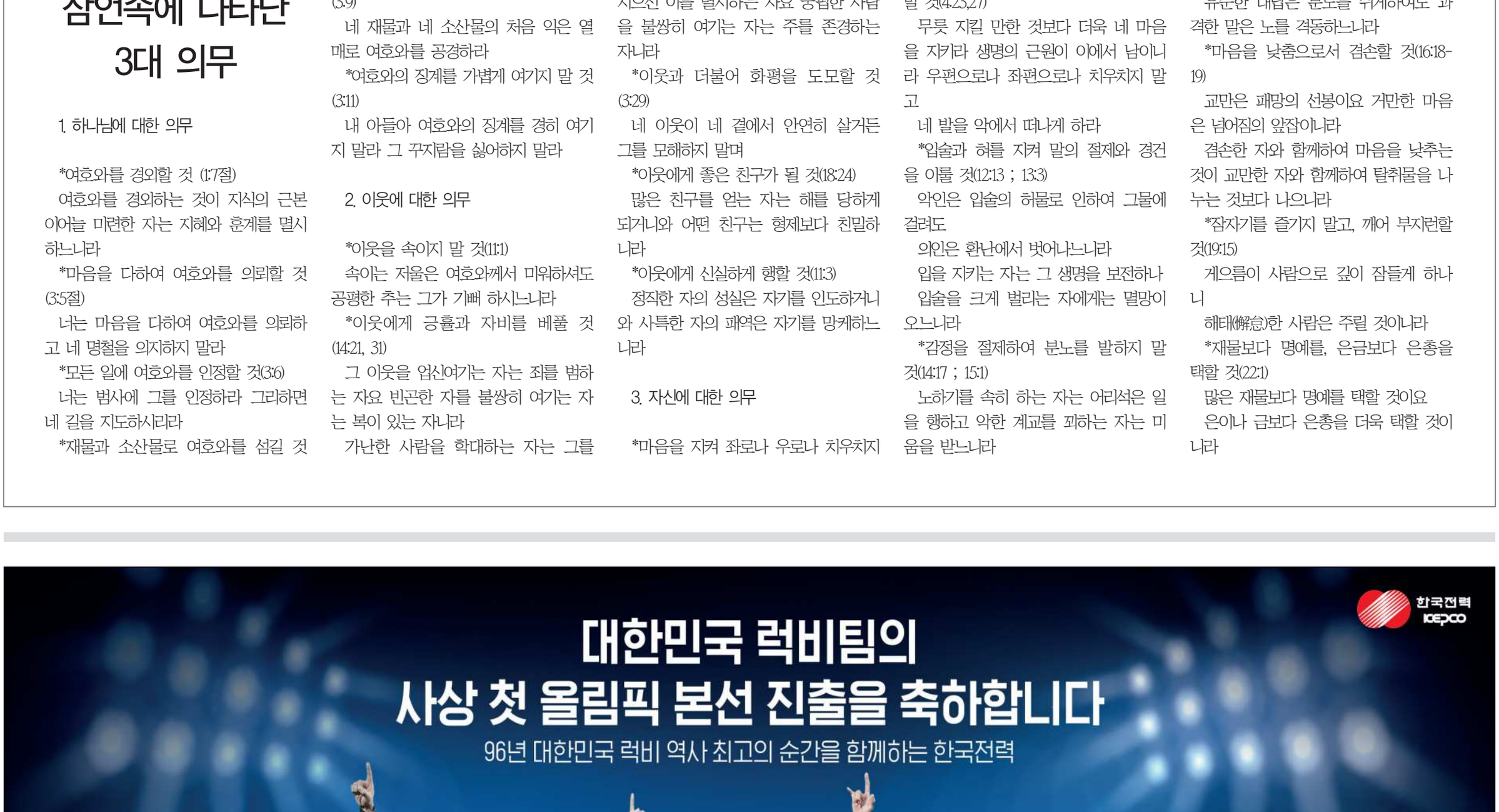
*여호와를 경외할 것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것(3: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것(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길 것(3: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3:11)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2. 이웃에 대한 의무

*이웃을 속이지 말 것(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 하시느니라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14:21, 31)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할 것(3: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할 것(11: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하느니라

3. 자신에 대한 의무

*마음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4:23,27)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의 절제와 경건을 이룰 것(12:13 ; 13: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감정을 절제하여 분노를 발하지 말 것(14:17 ; 15:1)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마음을 낮춤으로서 겸손할 것(16:18-19)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자기를 즐기지 말고, 깨어 부지런할 것(19:15)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懈怠)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22: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비와이와 함께 공연하는 정신호 목사는 누구인가

이커브미니스트리의 리더이며 싱어송라이터인 정신호 목사가 2월20일에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열리는 갓플렉스(GOD FLEX)에 비와이와 함께 찬양팀에 서게 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갓플렉스는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로서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던 한동대 이지선 교수와 배우 신현준 집사, 신애라 집사가 도전과 나눔에 대해 간증하는 대규모 청년행사이다. 이 행사의 찬양팀으로 단 두 팀이 섭외되었다. 비와이와 정신호 목사이다. 정신호 목사는 이날 오프닝을 맡는다.

정신호 목사는 2001년 데뷔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데뷔한지 20년차이다. 참고로 국내 CCM계에서는 원로로 불려지는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의 경력이 30년이니 데뷔한지 꽤 오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 정규앨범이 3집까지 나왔다. 2008년에 "Mighty God", 2016년 "Rightsign"을 냈고, 2019년에는 이커브미니스트리 이름으로 라이브앨범을 냈다. 피처링으로 참여한 앨범과 컴필레이션 앨범(기존 곡들을 다시 부른 곡들의 모음 앨범)은 20집이 넘게 출시했다. 최근에 작업한 것은 2019년 4월에 더 파이브의 '나를위해' 싱글앨범에 참여했었다.

정신호 목사는 천관웅 목사와 디사이플스 보컬로 활동하며 디사이플스 3집까지 내고 천 목사가 뉴사운드교회로 옮기며 정 목사가 디사이플스 리드보컬을 맡게 된다. 이후 7집까지 앨범을 발매하다 제자교회에 디사이플스를 내주고 2018년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커브미니스트리를 창단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다.

참고로 정 목사가 몸담았던 디사이플스(The Disciples Ministry)는 국내 워십선교단체중 하나이다. 1999년 5월에 창단되었고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 제자교회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다. 디사이플스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워십 콘서트'로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신호 목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 스스로 시대에 맞는 젊고 힘있는 예배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에 '21세기형 경배와 찬양'을 퍼트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워십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배로 워십 음악 사역을 시작하였다. 제이어스나 위러브 같은 워십팀들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정 목사는 합창 형식의 '모던 워십' 즉 '현대적인 경배와 찬양'이며, 형식적으론 콘서트적인 면을 적절히 가미한 역동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정신호 목사가 대중들에게 비와이만큼의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목사보다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팀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갓플렉스에 정 목사가 초청된 것은 그가 깊이 있는 신앙이 묻어나는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기 때문인 것으로 찬양관계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대중들도 그런 찬양관계자들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비록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가 작곡하는 곡들과 그가 부르는 찬양을 듣다보면 그를 통해 뻗어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많은 교회에서 기도회 배경음악으로 정신호 목사의 찬양을 트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의 신앙심 깊은 찬양을 느껴볼 수 있는 곡들을 추천한다면 정규앨범 2집에 수록된 '선교사',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예레미야의 노래', '기뻐하라' 등이 있다.

갓플렉스에 비와이와 함께 정신호 목사를 초청한 국민일보 종교국 부국장은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 초청된 지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정신호 목사가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거 같아 초청하게 되었다"고 섭외 사유를 전했다.

정신호 목사는 "작년 10월에 레코딩 집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라이브 2집 앨범으로 해서 2월 10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다. 2집앨범의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이다. 교회에 대한 격려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담았다."며 "매주 목요일 애오개역 서부교회에서 저녁 7시에 정기목요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촛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마음과 청년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삶이 쉽지 않은데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쉬웠던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정기목요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와이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비와이는 잘 몰랐다. 청년컨퍼런스 말씀집회 찬양집회라 생각했다. 근데 보니까 크리스천 연예인들 오신다 하니 화려한 무대고 어색하긴 하고 내가 함께 해도 되나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청년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한 자리이니까 참석하시는 연예인들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그들을 통해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분들의 간증과 새문안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청년들에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팀들이 한 자리에서 연합하는게 좋은거 같다."고 전했다.

곡 선정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시간이 3, 40분정도인데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만큼 다 같이 부르고 축복할 수 있는 곡들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방송 편성표

	시간	CBS TV	CTS 기독교TV	CGN	Good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설교/강남충무교회 성창용 목사 30 TV 설교/임마누엘교회 이성훈 목사	00 CTS새벽예배-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30 생명의 말씀-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00 생명의 삶 2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불후의 명설교 故 옥한흠목사 30 말씀의샘터 하남새계명교회 차영아목사	1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3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6:00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서산성결교회 김형배 목사 30 달콤한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생명의 말씀-장영일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영어자막)	00 말씀의샘터 신나는교회 이정기목사 30 말씀의샘터 예수소망교회 곽선희목사	00 C채널 스페셜 2019 교회교육엑스포
	7:0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GOODTV 뉴스 20 은혜와 찬양 만나교회 30 말씀의샘터 크리스탈순복음 정정자목사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김병삼 목사의 크리스천베이직 50 매일말씀
	8:00	20 CBS성서학당	0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의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20 나침반 바이블 - 양용의 교수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0 월드와이드 1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40 비전설교 주내힘교회 김남국목사	00 말씀의 창 -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10 올포원	2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40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0 노크토크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40 찬송의 재발견
	10:00	10 다음세대 특강 부모세움 40 CBS 뉴스	10 7000미라클-스페셜	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0 스캇브래너목사의 하늘의 지혜 잠언 40 금주의 말씀송	00 새에덴강단
	11:00	00 모두의 거실 5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00 [생방송] CTS 뉴스 5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수영로교회- 2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0 말씀의샘터 빛가온교회 서길원목사 30 말씀의샘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비전메시지 - 기쁨이있는교회 조지훈 목사
오후	12:00	00 TV 설교/서울 김포영광교회 박영민 목사 3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10 더 바이블 프로젝트 30 생명의 말씀-윤보환 감독(영광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서정오 목사(동숭교회)	00 GOODTV 뉴스 30 능력의 기도 50 말씀의샘터 예심교회 김기남목사	20 비전메시지 -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50 비전메시지 - 영암교회 유상진 목사
	13:00	20 이단 OUT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30 4인 4색	0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0 말씀의샘터 소생교회 강복렬목사 50 하늘양식 대구동부교회 김서택목사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14:00	00 TV 설교/[말씀의 힘] 성은교회-장재효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고난을 딛고 새길을 개척!]'국내1호 연예인 상담사 권영찬'	00 [생방송] 콜링갓 50 7000미라클-스페셜	20 생명의 삶 40 저스트 텐 미닛 〈제이어스〉 5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20 세계테마기행	00 백석의 샘터 50 삶과 만나
	15:00	20 영혼의 양식/금포교회 이우배 목사 30 TV 설교/TV 강단	40 CTS 특선영화	30 CGN 비전특강	20 금주의 말씀송 40 매일 주와 함께	00 2019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16:00	00 CBS성서학당:전도서 22강 - 김기석 목사 "지혜로운 삶" (본문 - 전도서 11:1-8)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30 생명의 말씀-이정익 원로목사/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10 나침반 바이블 - 이희성 교수 4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40 말씀의샘터 광은교회 김한배목사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장경동 목사의 행복플러스
	17:00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20 카일 아이들먼의 영적 전쟁 5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0 비전설교 이리신광교회 장덕순목사 40 마커스워십	20 찬양하라 내 영혼아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1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30 TV 설교/광림교회 열린 예배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신앙에세이	30 [말씀] 김형익 목사(벧샬롬교회)	10 GOODTV 명의열전	2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저녁	19:00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TV 설교/기쁜소식교회 김영준 목사	00 이태원의 I Love Jesus 30 신나는 성경여행	1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50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00 이영훈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스페셜 이욥 목사의 성경 맥잡기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00 명의	00 그렉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 3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전주바울교회)	3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비전설교 한소망교회 류영모목사 30 말씀의샘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목사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21:00	00 CBS성서학당 50 CBS 뉴스	00 생명의 말씀-권영구 목사(오병이어교회) 3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40 저스트 텐 미닛 〈워스킹〉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0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30 GOODTV 뉴스 50 말씀의 검 하나교회 이석목사	1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22:00	10 더 바이블	00 CTS 뉴스 50 신앙에세이	0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0 말씀의샘터 강남제일교회 문성모목사 50 TV데일리큐티 나무향기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꽃보다 목사 시즌2
	23:00	10 예수의 사람들	00 7000미라클-스페셜 50 ACT I 사도행전	00 [SOON] KNOCK 미니휴먼다큐 10 본향으로의 여정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수영로교회-	00 윤호균목사의 파워 오브 스피릿 50 은혜와 찬양 만나교회	00 한소망교회 목요찬양 40 리바이츠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5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00 콜링갓 50 4인 4색	10 CGN 투데이 30 생명의 삶 50 2019 TGC 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00 말씀의샘터 한울림교회 신숙자목사 30 비전설교 부산부전교회 박성규목사	00 한밤의 찬양 50 뉴젠워십 MINI
	1:00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40 TV 설교/말씀의 능력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20 내가 매일 기쁘게	40 붓소핸섭 시즌2 5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00 말씀의샘터 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목사 30 말씀의샘터 든든한교회 장향희목사	00 조용기 목사의 행복으로의 초대
	2:00	30 TV 설교/[말씀의 힘] 성은교회-장재효 목사	10 CTS스페셜Praise 30 빛으로 소금으로 40 Let's Talk in English	20 이재훈 목사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00 세계테마기행	00 말씀의 창 -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성지가 좋다
	3:00	00 더 바이블	00 테텔레스타이 : 다 이루었다 3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	0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3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이평찬목사의 행복한 만남 30 USI 신학연합메세지	00 새에덴 강단
	4:00	00 CBS성서학당:창세기 17강 - 신우인 목사 "특명! 생명나무를 찾아라" (본문 - 창세기 3:18-24) 50 CBS 교회소식	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종순 목사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은혜와 찬양 이리신광 새빛워십 20 GOODTV 새벽예배 굿모닝 지저스 할렐루야교회 김승욱목사	00 매일말씀 1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CCM 칼럼

뉴에이지 음악은 정말 사탄의 음악인가?

1980년대 중반이후 불기 시작한 뉴에이지음악의 열풍에 대해 교계는 이에 대한 수용문제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이는 당시 대중화되기 시작한 크리스천 대중음악인 CCM에 대한 교회 내 수용문제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논쟁거리였다. 초기에는 새로운 이단사상을 담은 음악으로 정의를 내리고 절대청취 불가의 원칙이 대세였다. 그러나 현대적인 인스트루멘탈 뮤직의 전반적인 음악들까지도 뉴에이지라는 명목하에 금기시 되는 흑백논리가 점차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이후 뉴에이지뮤직에 대한 명확한 장르적 구분과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해 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음악에 노출되어왔다.

최근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 접하는 음악중 상당수가 뉴에이지음악이라고 불리는 음악장르에 속해있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TV CF에서 드라마의 삽입곡이나 어린이 만화의 배경음악까지 우리에게 노출되어있는 음악의 대부분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사실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사탄의 음악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일까?

뉴에이지 음악의 정의: 뉴에이지라 해도 모두 뉴에이지는 아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명상 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음악에서 시작됐다. 뉴에이지 운동은 서양의 현대문명과 유일신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생겨났다. 이 운동은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도 명상훈련을 하며 노력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도를 닦은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이들은 사람이 죽고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완벽한 생명 즉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 영화, 음악, 미술처럼 분명하지 않은 문화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는 수용 전에 고찰을 통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 뉴에이지음악은 1960년대부터 명상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980년대 들어서 뉴에이지 운동이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중 1982년에 조지 윈스턴이라는 뉴에이지 음악가가 발표한 'December'라는 앨범이 크게 성공하면서 뉴에이지 음악은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후에 편안하면서 아름다운 선율의 뉴에이지음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음반 미국의 판매순위인 빌보드차트에 뉴에이지부문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 재즈나 클래식 연주자들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나 차분한 연주 스타일을 선보이게 되면 거의 모두 뉴에이지로 분류되었다.

8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중음악시상식인 그래미어워즈에 뉴에이지 부문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인 음악장르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때부터 만들어진 환경음악, 월드뮤직 퓨전음악 같은 대부분의 현대 연주음악들 까지 모두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여기서 각 나라의 민속음악을 모은 월드뮤직을 하나의 음악



장르로 볼 수 없듯이 뉴에이지도 클래식이나 재즈처럼 하나의 장르로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음악을 담아 버렸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뉴에이지 음악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현대적인 연주음악(Contemporary Instrumental music)으로 정리되면서 그 안에 전력를 쓰지 않는 어쿠스틱악기로 연주한 음악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적인 부문으로만 분석한다하더라도 뉴에이지 음악이라서 해서 모든 음악이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는 없다는 대략적인 추론이 나온다.

기독교인들, 뉴에이지 어떻게 구분하고 경계해야 하나?

60년대에 악마의 음악으로 불렸던 락음악이 70년대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뀌었듯이 최근에는 미국의 마이클 W. 스미스나 마이클 카드, 훼르난도 오르테가 같은 CCM 아티스트들도 뉴에이지 스타일의 음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크리스천이면서 대표적인 뉴에이지음악 연주자로 잘 알려진 짐브릭만 도 자신의 앨범 게스트로 CCM 아티스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들 앨범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내 크리스쳔 뮤지션들중에도 '이루마'같은 연주가는 뉴에이지음악과 관련된 연주활동이나 앨범을 발표하며 교회를 대상으로 투어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뉴에이지 음악들은 뉴에이지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음악 안에 참선(명상을 통해 신이 되고자 하는 행위)이나 지나치게 자연을 숭배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면 의심하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음악들의 대부분은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하고 들는 행위를 그칠 필요가 있다.

사울왕이 악신 때문에 고통 받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 치유했던 것처럼 음악에는 치유의 힘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을 지배당하는 영향 하에 놓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가까운 실례를 들어보면 99년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에서 급우들을 사살한 문제의 학생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이 인간내면의 폭력과 반항을 부추기는 매릴린 맨슨의 음악이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죽음의 송가'로 알려져 '글루미 선데이'에 대한 사건들이다. 이 곡은 1935년에 레코드로 발매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 발매 8주만에 헝가리에서만 이 노래를 듣고 187명이 자살했고 이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면서 자살한 어두운 흔적을 남겼다. 이렇듯 음악은 잠재적으로 우리의식에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 깊은 선별을 필요로 한다.

우선 뉴에이지음악을 구분해서 들으려면 작곡자의 성향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반의 표지나 제목 그리고 내용에서 어떤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감상용이 아닌 지나치게 명상이나 치유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뉴에이지 운동과 연관이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뉴에이지 사상을 담은 음반을 주로 발매하고 있는 뉴에이지음악 관련 전문 레이블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조지 윈스턴의 앨범이 발매됐던 윈덤 힐(Windham Hill), 얼마전 내한한 데이비드 란츠의 앨범이 발매됐던 나라다(Narada), 그 외에 하이어 옥타브(Higher Octave), 리얼뮤직(Real Music), 뉴어스(New Earth), GTS 같은 뉴에이지 '전문' 레이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다면 구분해내기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는 모든 음반이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깊은 영적 고찰이 필요하다.

추연중 CCM칼럼니스트 (추미디어 대표)



제이어스 정기토요예배 안내

2011년 데뷔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정규앨범을 내고 기독청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워십팀 제이어스가 2020년에도 정기토요예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제이어스의 토요예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저녁 6시에 성락성결교회 3층 본당(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0길33)에서 열린다. 단, 2월은 2월2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용인제일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는 드디어 앨범 녹화가 이뤄지는 날이다. 녹화가 되면 3월에는 제이어스의 새 앨범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성락성결교회는 지하철로 2호선 성수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버스로는 성수2가3동 주민센터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다. 버스번호는 2012, 2222, 302. 교회 내에 주차가 가능하나 교회 앞 교통이 혼잡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참석 가능한 예배이며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줄과 자리를 맡는 것은 불가하다. 교회내 식당이 따로 없으며, 가져온 음식은 로비에서 먹을 수 있다. 입장대기는 오후 4시부터고 입장은 5시20분부터, 예배는 6시에 시작되어 8시반까지 진행된다. 문의는 성락성결교회로 하면 된다. (02.537.9561)

정기예배 상반기 일정을 살펴보면 6월까지만 스케줄이 잡혀있다. 2월달은 2월2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용인제일교회에서 열린다. 나머지 달은 모두 성락성결교회에서 저녁 6시에 열린다. 3월은 28일에, 4월은 25일에, 5월은 23일에, 6월은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웰에이징 및 시니어산업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영자 프로그램 !

2026년, 고령인구 20% 초고령화 사회 진입!
NEW 시니어 비즈니스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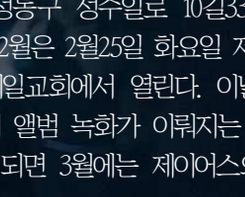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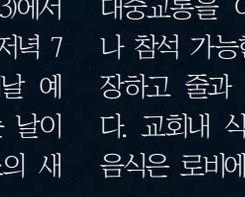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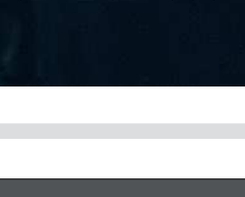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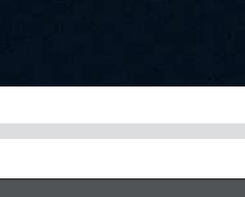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제8기 서울대학교 웰에이징 • 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
(Advanced Program for Well Aging • Senior Business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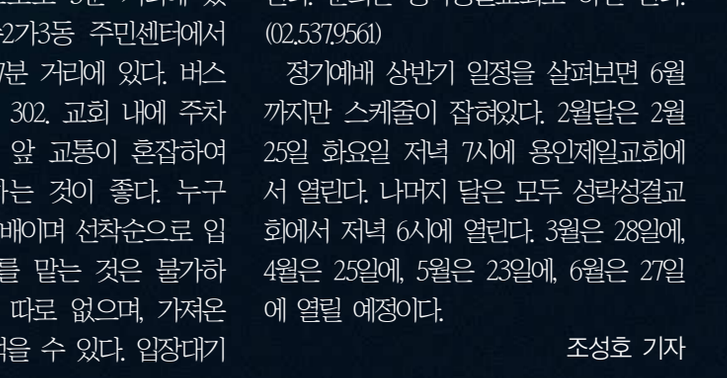
▶ 교육기간 : 2020년 3월 24일(화) ~ 2021년 2월 9일(화)
▶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17:30 ~ 20:50 (1일 2강좌 / 석식 포함)
▶ 모집인원 : 60명 내외
▶ 지원자격
•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및 관련업체의 임원급 이상의 경영자
• 정부 및 각 공공기관의 시니어산업 정책 결정자
• 웰에이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전문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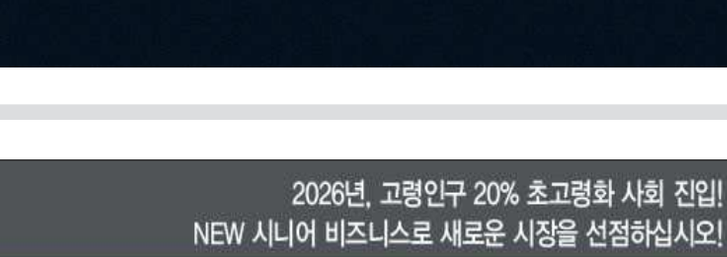
▶ 주요 교육내용
– 고령사회 마켓의 가능성 발견
– 중노년기 및 시니어의 특성
– 시니어 삶의 법 지식과 정책적 환경
– 시니어의 사회적 관계
– 신노년의 등장과 웰리빙
– 시니어 공간과 디지털 에이징
– 시니어의 삶의 질과 시니어산업

다양한 교육 혜택과 동창회 활동
- 총동창회 합동강의와 홈커밍데이 개최
- 국내외연수, 특별연수, 원우기업방문 실시
- 다양한 경영자 특강
동창회 활동을 장려하여 관련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을 통한 문화적 교류도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2019년 현재 360여명의 수료생 배출)


〈정규 수업 : 222동 최병오홀〉

〈성남고령친화체험관 현장 학습〉

〈홈커밍데이 : 버들골 풍산마당〉

〈특강 : 교수회관 야외정원〉

〈특별연수 :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방문〉

시니어산업 관련 최고경영자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년)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Nobel Prize Dialogue)
(왼쪽부터)노벨상 위원회 아담스미스 박사, 서울대학교 한경혜 교수(웰에이징 • 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옥스포드대학 사라 하퍼 교수, 노벨상 수상자 후버 박, 콜롬비아대학 우르슬라 스타우딩거 교수

입학 문의) 공개강좌 사무국

Tel : 02-880-2529 / 5712
Fax : 02-876-2212
E-mail : alex2860@snu.ac.kr
채널 ID : snuceo

홈페이지
http://awasb.snu.ac.kr

※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생활과학대학 공개강좌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다만, 문의전화가 많은 관계로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검색 ID : snuceo)로 문의 사항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등록금 : 8,000,000원)

최종 접수마감 : 2020년 3월 10일 까지

질병관리본부 KCDC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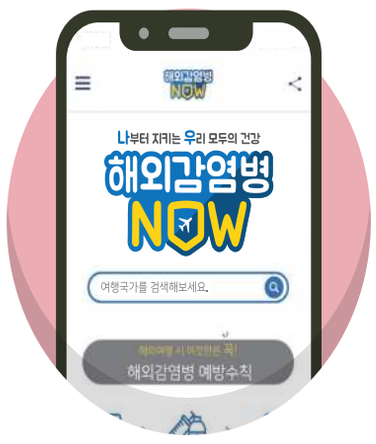
주요증상

- 발열
- 폐렴
-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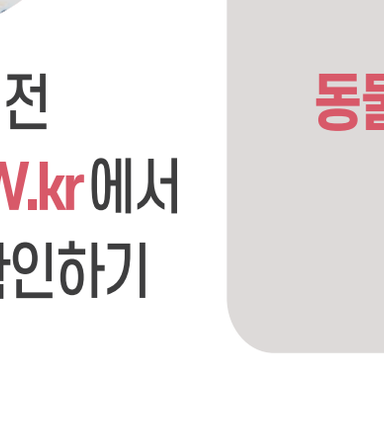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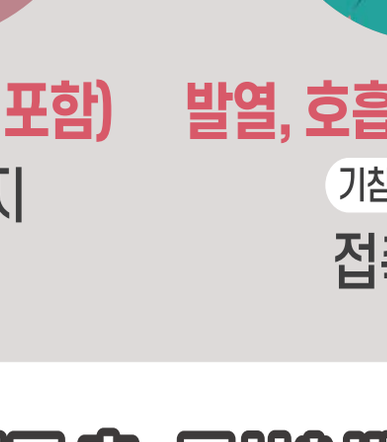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증상*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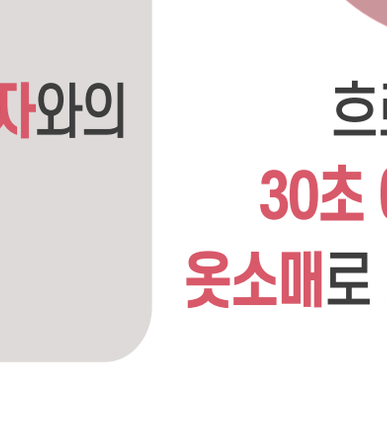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및 지역번호+120 문의

게시일 : 2020.1.28